

세계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교수학습자료

# 인천 이야기를 역사수업에 담다





# 들어가는 말

인천 이야기를 역사수업에 담다

지역에 기반한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정체성과 더불어 살아갈 미래,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역은 단순히 공간적인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삶의 기반입니다.

지역은 공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변화를 기반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오랜 역사를 지닌 인천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공유하고자 인천의 근현대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주제는 인천지역을 기반한 이민사와 역사왜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본 자료집의 교수학습자료가 학교 현장 속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되어 다양한 사례로 확장되고 실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천하는 다양성이 함께하는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자료의 풍성한 열매는 또 다른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개발진 일동



# CONTENTS

## 고등학교

### ▶ 들어온 사람들

- 1-1. 개항기 인천에 들어온 사람들 ..... 9
- 1-2. 한국 근대사와 외국인 ..... 34

### ▶ 나간 사람들

- 2-1.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 55
- 2-2.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제작하기 ..... 77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 3-1.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127
- 3-2. 다문화 시대 살아가기 ..... 145

### ▶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바로 알리기

- 4-1. 강제동원 ..... 165
- 4-2. 일본군 위안부 ..... 184



# 1

## 들어온 사람들

### 1-1

#### 개항기 인천에 들어온 사람들

### 1-2

#### 한국 근대사와 외국인





# 1 들어온 사람들

## 1. 개항기 인천에 온 외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 가. 수업 요약

수업유형	모둠별 탐구 학습	총 차시	5	
주제	개항기 인천에 온 외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핵심 질문	개항을 전후하여 들어온 외국인들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			
해당 과목 및 단원명	-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 『세계사』 5.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 『동아시아사』 4.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성취기준	[10한사02-05]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략과 이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12동사04-01] 개항 이후 나타난 국제 관계의 변동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을 비교한다. [12동사04-03]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			
성공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교과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설계 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개항기 외국과 만나는 항구와 조계지가 있던 지역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나 근대 문물의 유입과 관련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의 선조들 타국과 만나는 양상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더불어 우리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현재 인천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의 사진 자료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있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조사하면서 과거의 사실과 영향 그리고 역사적 이해를 확장하고 현재의 의미까지 생각하게 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주요 산출물	- 건축사진 자료조사 학습지, 근대 건축과 관련된 마인드 맵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책			

나. 수업 개요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에 있는 건축물 사진을 제시한다.</li> <li>2. 사진의 건축물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왜 만든 것인지 등을 학생들과 확인한다.</li> <li>3. 제시된 사진을 모둠별로 추가 조사하며 인천(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li> </ol>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교실(와이파이, 탭)	활동지 1
전개	주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둠별로 관심있는 건축물 사진들을 선택하여 탐구 주제를 결정한다.</li> <li>2. 주제에 따라 근대 건축물과 관련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한다.</li> </ol>	건축물, 인물, 역사적 사실을 2개 이상씩 조사하도록 안내	활동지 2
	자료 수집 및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인드맵을 토대로 근대건축물, 인물, 역사적 사건을 모둠별로 조사한다.</li> <li>2. 개화기 인물과 사건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과 선조들의 대응을 함께 생각한다.</li> <li>3. 현존하거나 사라진 근대 건축물의 현재적 의미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li> </ol>		활동지 3
	결과물 개발 및 검토	<p>조사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바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책’을 만든다.</p>		활동지 4
정리	결과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갤러리 워크 형태로 모둠별로 만든 결과물을 살펴보고 동료평가를 실시한다.</li> <li>2. 모둠별 제작한 역사책을 간단히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한다.</li> </ol>		활동지 5
	성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인천의 이야기를 써보자.</li> <li>2.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역사적 건물과 유적을 이야기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li> </ol>		활동지 6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도입 1차시

활동지1 - 인천 건축물 카드

1. 다음 건축물이 무엇인지 빈칸에 쓰시오.
2. 누가, 언제, 왜 만든 건축물인지 조사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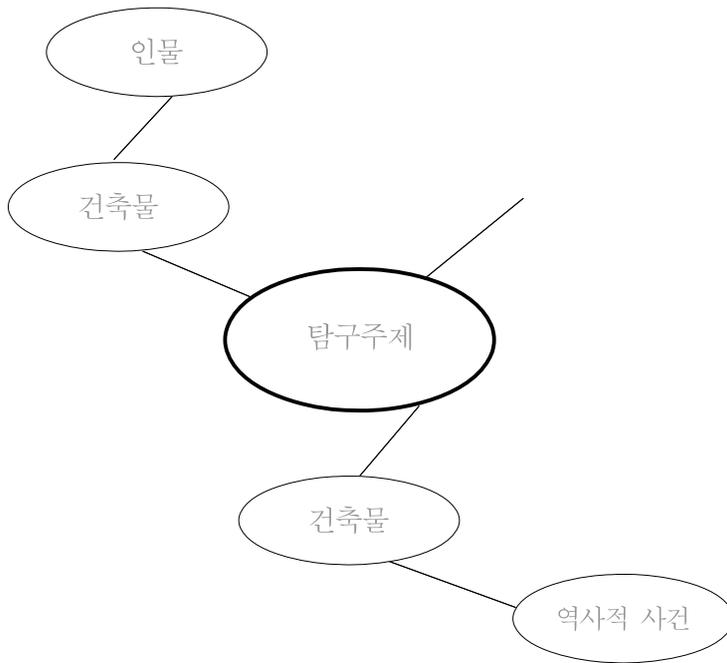
			
1.【한미 100주년 기념탑】	7.【인천시민애집】	가.【각국공원】	사.【인천부청사-중구청】
			
2.【짜장면 박물관】	8.【인천역】	나.【내리교회-영화학교】	아.【알렌 별장】
			
3.【인천항 갑문】	9.【성남박물관】	다.【일본 제1은행】	자.【미두취인소】
			
4.【신포국제시장】	10.【익선당】	라.【일본우선주식회사】	차.【월미도】
			
5.【인천내동 성공회성당】	11.【답동성당】	마.【러시아 영사관】	카.【제물포 구락부】
			
6.【카페팻알】	12.【인천 화교학교】	바.【동양방적】	타.【인천신사】

<p>1. 【                   】- 존스톤 별장터 각국공원 3·1운동 이후 13도 대표 회의 - 한성정부 조직, 흥진 존스톤 - 영국 사업가 여름별장, 랜드마크, 6·25 소실 한미수교 100주년기념 -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p> <p>2. 【                   】- 공화춘 중화요리, 짜장면 - 쿨리 학교 - 화교배척사건, 화교차별 정책 - 재이주 우리당</p> <p>3. 【                   】 10m 넘는 조수간만의 차 일본거류민 청원-이중갑문 축항사업 1918년 준공 김구</p> <p>4. 【                   】- 공설시장 러일전쟁 이후 중국인 노동자 이주 증가 신포시장 인근 도로변 중국인 채소 판매 노점 1914년 총독부 시장규칙 1927년 공설일용품시장 조례 1929년 제1공설시장(해물) 1932년 제2공설시장(청과)</p> <p>5. 【                   】 고요한 주교 남득시 박사 - 약대인 성누가 병원 -러일전쟁 러시아인 치료</p> <p>6. 【                   】- 대화조 사무실 인천항 하역 인부 관리 회사 히로이케 데이시로 조운업, 일본식 상가주택</p> <p>7. 【                   】- 고노 다케노스케주택 잡화·석유상, 계림잡업단 조직-일본지원 무장 행상단 미 두취인소 이사, 아시히양조 이사, 월미도유원회사 사장 인천시장 공관, 역사자료관</p> <p>8. 【                   】 1899 한국최초 철도, 미국인 모스 - 운산금광 건설 콜브란 - 전차 일본의 수탈</p> <p>9. 【                   】- 조선인촌주식회사 경공업 발달 : 정미소, 양조공장, 장유회사 노동집약 소비산업 (여성노동) - 저임금 장시간, 파업</p> <p>10. 【                   】- 중국식 사원 극빈자 장애인 구제 등 선당에 기원 학교의 질서유지와 상호 협력의 구심점</p> <p>11. 【                   】 빌렘 신부 - 안중근 세례, 위순 면회 학교 건축 - 화공(華工), 박문학교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 박종철 열사 추모미사</p> <p>12. 【                   】- 청국영사관터 위안스카이, 1882년 임오군란 조선 파견 화교시작 1884년 청국조계 설치 영사관 옆 선린동 1-5주택 - 순태양복점 전금근</p>	<p>가. 【                   】- 세창양행 사택터 각국공원-&gt;서공원-&gt;만국공원-&gt;자유공원(맥아더 동상) 세창양행 - 독일, 면제품·곡물·기계, 뮐렌도르프 한성주보 최초 광고 '고백'</p> <p>나. 【                   】- 영화학당 아펜젤러, 언더우드, 조원시 하와이 이민</p> <p>다. 【                   】- 인천 개항 박물관 전환국(전동), 화폐정리사업, 메가타 고문 일본제18은행(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일본제58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중부지구)</p> <p>라. 【                   】- 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 일본 나가사키와 인천 정기항로 운영, 물류수송 독점 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 군회조점, 창고 세관 창고 건물(신포역 2번 출구)</p> <p>마. 【                   】- 러시아영사관 터 사바틴 - 을미사변 목격, 해관 근무 러일전쟁</p> <p>바. 【                   】- 동일방직 인천공장 1930년대 일본 5대 방직회사 중 하나 대공황 여파 중국진출 모색 1934 인천설립 해방후 동일방직, 강경애 소설 『인간문제』 배경 1970년대 노동운동의 현장</p> <p>사. 【                   】- 일본영사관, 인천중구청</p> <p>아. 【                   】 의사 광혜원 설립, 주한 미국공사관 공사 하와이 이민, 데실러</p> <p>자. 【                   】 전국 쌀의 인천항 집결 항구와 철도 발달 정미소, 양조공장 등 미국산업 발달</p> <p>차. 【                   】 인천 축항 사업 월미도 제방건설 - 김구 스탠다스 석유회사 저유창고 일본제분 - 대한제분</p> <p>카. 【                   】 각국조계 외국인 친목도모 사바틴 설계 알렌, 우리당</p> <p>타. 【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890년 6월 낙성식 이세 신궁에서 분사 청일전쟁 전사자 추모비, 동공원</p>
---	--

전개 2차시

활동지2 - 마인드 맵

1. 근대 건축물 중 관심있는 사진 자료 선택
2. 개항부터 현재까지 건축물과 관련된 인물과 역사 사건을 조사하며 마인드맵 작성(건축물 2개, 인물 2명, 사건 2개 이상)



전개 3차시

활동지3 - 학생 활동 계획서

[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탐구 주제				
주제 선정 배경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나의 조사 내용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선조들과의 관계 등)	건축물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물			확인
				<input type="checkbox"/>
	사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전개 4차시

활동지4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책 만들기

[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1. 10P 무지 스크랩북을 모둠별 1권씩 배부
2. 작성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인천의 근대 건축물과 관련하여 조사한 인물과 역사 사건을 소개하는 책자 만들기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 인물, 사건명</li> <li>2. 관련 내용 서술</li> <li>3. 강조하고 싶은 내용 느낀점 또는 평가</li> <li>4. 꼬리를 무는 다음 연결 내용</li> </o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width: 80px; margin: 0 auto;">                 관련 사진             </div>
---	--

자신이 조사한 부분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책에 소개할 자료를 만들어 보자.

정리 5차시

활동지5 - 결과물 발표 및 동료 평가

[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탐구 주제				
주제 선정 배경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이름		역할	
나의 조사 내용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선조들과의 관계 등)	건축물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물			확인
				<input type="checkbox"/>
	사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정리 5차시

활동지6 - 자기 성찰 일지

[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탐구 주제				
탐구 질문				
발표 결과물 요약				
<b>자기 자신에 대하여</b>				
탐구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사실 이해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자료 분석과 해석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역량 <input type="checkbox"/> 정체성과 상호존중 역량		
가장 최선을 다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소개하고 싶은 우리 인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서 아쉬운 역사적 건물과 유적 또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물과 유적은 무엇인가요?				
<b>탐구활동에 대하여</b>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웠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탐구학습을 위해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라. 교사 참고 자료

1 마인드 맵(예시)

주제		관련 내용
종교 건축	인천 답동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사적 287호), 파리외방전교회</li> <li>• 에우제니오 드뇌(전학준)</li> <li>• 빌렘 - 안중근</li> <li>• 화교 건축회사, 화공, 벽돌공</li> <li>• 인천박문학교, 해성보육원, 해성병원</li> <li>• 동일방적 똥물투척사건, 인천 6월 민주항쟁</li> </ul>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회 최초 바실리카 양식(1956)</li> <li>• 찰스 존 코프(고요한) 주교</li> <li>• 랜디스(남득시) 박사 - 성누가병원</li> </ul>
	인천 감리교 내리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펜젤러, 언더우드, 조지 존스(조원시)와 존스 여사</li> <li>• 알렌-왕실의사, 고종의 정치고문, 광혜원</li> <li>• 영화학교 영화여학교, 여선교사 합숙소</li> <li>• 하와이 이민, 데실러</li> <li>• 모스 - 경인선, 운산금광</li> </ul>
중국, 화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춘(짜장면 박물관), 위시광, 나석주, 쿨리</li> <li>• 삼파도(三把刀) - 중화음식점, 양복점, 이발소</li> <li>• 화교의 제약과 차별 - 화교배척사건, 재이주</li> <li>• 우리탕 - 외교고문 뮐레도르프 추천, 보빙사 통역, 해관 직원(1883, 국제통상업무) 우리탕 주택, 청국총여사관 서기, 외국인 묘지 매장</li> <li>• 화교중산학교 - 청국영사관 회의청, 의선당, 재미전 거리 - 공설시장(신포국제시장)</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영사관터 - 인천부청사, 인천 중구청</li> <li>• 일본우선회사, 군회조점 창고 - 아트플랫폼</li> <li>• 일본 제1은행일본 일본 제18은행, 일본 제58은행, 미두취인소 대불호텔, 흥예문, 송현 배수지</li> <li>• 인천신사 터 - 동공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li> <li>• 경인철도 부설</li> <li>• 인천항 - 조수간만의 차, 이중갑문식 선거사업 1918년 준공, 1974년 현재 갑문 준공 김구<sup>1)</sup> 인천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 어머니 광낙원 여사 인천에서 옥바라지</li> <li>• 인천 총독부 관측소 - 한국 최초 기상 관측 시설, 러일전쟁 중 일본 군부 요청 설치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 관측소, 일제강점기 만주까지 총괄</li> <li>• 월미도 - 한일의정서 근거 거주민 이주시키고 군수물자의 보관·수송기지 건설 월미도와 인천역 철도 건설, 1917년 인천역 월미도 제방건설 유원지 촉진</li> </ul>	

1)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 있다가 1898년 탈옥, 1910년 안악사건으로 경성감옥에 있다 1914년 인천감옥 이감.

<p>구미열강 (각국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스톤 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사업가 여름별장, 인천의 랜드마크</li> <li>-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한성정부 조직, 흥진</li> </ul> </li> <li>• 세창양행 사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마이어 상사의 제물포 지점(1884, 무역회사)</li> <li>- 파울 쉬르바움, 칼 발트(존스톤 사위), 뮐렌도르프</li> <li>- 한성주보 1886년 광고 '고백', 세창바늘 → 맥아더 동상</li> </ul> </li> <li>• 타운센트 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무역회사, 월터 데이비스 타운센트 1884년 제물포 지점</li> <li>- 왕실 사치품과 전기공사(에디슨전기회사), 1892년 증기이용 정미소</li> <li>- 스탠다드 석유 조선 독점 판매, 월미도 저유창고</li> <li>- 미국인 모오스와 동업 철도회사, 알렌의 도움으로 운산금광 개발</li> </ul> </li> </ul>
------------------------	---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책'참고 자료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 '화교가 없는 나라', '인천인물 100人'에서 발췌 요약]

**화교**

- 1882년 임오군란 진압을 위해 파견된 오장경 군대와 함께 조선에 진출
-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 조계 설치, 조선 공식이주 및 중국인 보호를 위한 공관 설치
- 조선의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조선총독부에서의 공사가 많아 **화공(華工)** 선호
- 조선의 채소 수요 증가에 따라 **화농(華農)**이 채소 대량 생산
  - 러일전쟁 이후 부두 하역과 소작 농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가 증가, 1907년경부터 중국인 소작농이 재배한 채소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한국과 중국 채소상들이 지금의 신포시장 인근 도로변에 노점을 개설하며 시장이 만들어짐, 중국 소작농들은 현재 남구 도화동과 송의동 일대에서 채소를 재배해 시장에 내다 팔. 1914년 총독부령으로 시장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인천부에서 1927년 시장 사용조례가 제정되어 1929년 해산물을 취급하는 제1공설시장이 문을 열었고 1932년 청과를 판매하는 제2공설시장(신포시장)이 준공되었다.
- 최대 **화상(華商)** 동순태는 상해 동태호 자본, 주단포목점은 산둥 연태 자본 투입
- 화교는 특정 지역 출신자가 연쇄 이주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한 특징, 조선화교의 80~90%는 산둥성 출신
- 인구변화
  - 1883년 화교 166명. 청일전쟁 직전 1893년 2,182명이었으나 전쟁으로 귀국. 1907년 7,739명. 일제강점기 1910년 11,818명, 1920년 23,939명, 1925년 46,196명, 1930년 67,794명, 1931년 화교배척사건과 만주사변으로 급감. 1933년 점차 회복되다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절반이 귀국. 1944년 7만여 명. 해방 이후 한국화교(12,000명)와 북한화교(6만여 명-화농과 화공 다수)로 분단. 북한화교의 재이주와 국공내전으로 1949년 한국화교 2만명 넘음. 한국전쟁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여 1976년 32,436명을 기록하다가 미국이민법 개정과 화교 경제 침체, 한국의 차별 등으로 미국과 대만으로 재이주. 한국화교의 지속적 감소로 현재 2만여 명도 안됨.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이주 급증하여 老華僑와 구분 新華僑라 함. 재한조선족이 한족보다 많음.
- 삼파도(三把刀) 세자루의 칼인 식칼, 가위, 면도를 말하며 이주한 중국인이 이 칼을 이용한 기술로 생계를 이음 중 **화요리점**, **양복점**, **이발소**를 삼도업이라 함. 중화요리 산둥성 출신, 양복점 상해 근처 절강성(영파부) 출신, 이발소 다수 후베이성(호북성) 또는 일부 산둥 출신임.
  - 1880년대 **중화요리점** 발전 초기 화교가 주요 고객이었으나 점차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대중화되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최고 외식으로 자리잡음. 화교의 70%이 이에 종사하였으나 이후 한국정부의 규제와 차별<sup>2)</sup>, 기술을 습득한 한국인의 개점으로 화교가 해외로 재이주 함. 중화요리점의 종류는 고급중화요리점, 중화요리음식점, 호떡집이며 중국 특유의 합과(합자) 조직이었음.
  - **양복점**은 일본의 거대자본과 조선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밀려 경쟁하다 중일전쟁의 통제경제로 원단 배급이 감소하여 문을 닫으면서 해방 후 거의 사라짐.
  - **이발소**는 요금이 저렴하였고 귀를 후벼주며 어깨를 안마하는 등 서비스가 좋아 인기가 있었음, 이발 자격시험으로 일본어가 안되는 화교가 불리해지고 요금 일원화로 점차 쇠퇴함.

2) 1968년 외국인토지법에 점포는 50평이 넘지 못하도록 규제, 같은 장소에서 장기 영업할 경우 비례하여 세금을 가산하는 등 다양한 세금 규제가 있었음.

- 비단 장수 왕서방의 후예-**주단포목상** 중국인 조선 이주 초기 1883년 서울과 인천에 광동성과 산동성 화교가 진출하여 일제강점기 1930년에는 주단포목상 시장의 20~30%를 장악. 1924년 중국산 비단에 100% 관세를 부과하며 일본산 비단의 시장 점유와 일본인과의 경쟁이 심해짐. 중국산 모시·삼베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함. 1931년 화교배척사건으로 국내 유통 하부조직의 화교가 귀국하였고 연쇄적 자금압박과 조선 금융기관이 대출 꺼려 줄도산 하였음. 중일전쟁 이후 더욱 위축되어 절반이 귀국하거나 통제경제정책으로 주단포목을 배급하게 되면서 문을 닫음.
- 주물업-1910년대 주물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으로 중국에서 조선으로 진출.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목탄이 아닌 코크스와 석탄의 사용으로 값이 싸고 품질이 좋아 조선 솔 시장의 7할을 독점함. 중국 3대 주물산지인 **하북성 박두 출신**이 많음. 중일전쟁으로 통제경제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남북분단 등으로 공장간 연락 두절 및 농민의 대량 도시이주와 주물공장 시외 이전 조치 등으로 일부 명맥만 유지하고 다수 화교가 미국으로 재이주 함.

### ☞ 청국영사관(화교 학교)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 조계 설치 요구, 조선 이주의 공식 인정 및 중국인 보호를 위한 공관을 설치.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하여 일본조계 서쪽에 5,000평을 청국 조계지로 제공함. 조계 설정 이후 이사청(청국 영사관) 설치(1887년 삼리채확충화계장정 체결로 현재 경동사거리 지역에 조계를 추가 설정했으나 청일전쟁 후 조약폐기,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중화민국 거류지 폐지 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에 편입). 1930년 인천영사관 폐쇄 이후 화교중산학교 부지로 활용, 1934년 학교 건립. 영사관 건물 중 현존하는 것은 1910년에 만들어진 회의청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음. 중국 관청 건축의 전형.

1883년 44명에 불과하던 화교 수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과 함께 중국 상인들이 대거 이주하며 235명까지 늘어 1890년에는 1,000명으로 늘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국 조계를 빼앗으려 했으나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조선과 서구 열강에 의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일병합 후 청국 조계는 지나정으로 낮추어 불리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 거주하던 화교는 한국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화교 억압으로 한국을 떠나 타이완이나 미국으로 이주함. 1992년 한중 수교로 중국 관광객 방문과 화교 자본의 유입으로 재발견되어 2001년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월미관광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었음.

### ☞ 공화춘

화상 의원흥이 있던 곳으로 1908년 건물 두 개 동, 1917년 여관과 식당, 상품 중개를 하며 공동투자하여 객잔을 운영, 1908년 설립당시에는 산동회관이었는데 1911년 신해혁명을 기념해서 공화국의 봄이라는 뜻의 공화춘으로 이름을 바꿈. 중일전쟁 이후 요리점 공화춘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중화요리점으로 사용, 1984년 공화춘이 문을 닫으며 가정집과 창고로 사용되다 2012년 짜장면 박물관으로 개관

**❁ 의선당(義善堂)**

중국식 사원. 1883년 개항과 함께 인천에 건너온 중국 상인 중 극빈자나 장애인 등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함. 중국의 민간단체인 善堂에 기원을 둬. 초기 화교 중 불의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는 것을 담당하거나 귀국하고 싶어도 여비가 없는 사람에게 여비를 제공함. 화도진 근처에 있던 것을 지금 건물로 이전하여 신축. 산신령 격인 '호삼태야', 바닷길을 지켜주는 '사해용왕', 극락을 위한 '관음보살', 재복을 주는 '관운장', 바다를 지키고 가족의 평안을 관장하는 '마조'를 모심. 인천 화교의 사원이자 집회소로 구제 활동의 역할을 함. 화교 사회의 위촉과 함께 1979년 쿵푸 도장으로 활용되다 1990년대 폐관. 2006년 중구청의 차이나타운 개발과 한중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중수함.

**❁ 인천역**

초기 역사 건물들은 1920년대 이후 이용객 증가로 증·개축 함. 일제강점기 동안은 초기 형태를 유지하며 인천항의 화물 수송을 담당했고 여객수송은 지금의 동인천역인 축현역이 주로 담당하였음. 지금의 인천역사는 기존의 역사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1960년에 새로 건립한 것임.

**❁ 경인철도**

한국 최초의 철도로 1896년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획득하여 1987년 3월 우각역에서 기공식을 함. 공사 중 자금난으로 곤경에 빠진 모스는 1898년 12월 일본인에게 부설권을 양도하여 일본인이 공사를 진행해 1899년 처음으로 인천-노량진간 운행을 시작하였고, 1900년 7월 인천-경성 전 구간을 개통함.

**❁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개항과 함께 인천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무역을 지원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인천 해관의 관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제1은행 부산지점의 인천출장소로 1883년 11월에 개설. 은행 업무가 증가하며 1888년 인천지점으로 승격되었고 1897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함. 한일병합으로 조선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되다 해방 후 조달청, 등기소를 거쳐 지금은 인천 개항박물관으로 이용. 건물 규모는 작지만 돌출된 포치와 돔으로 강조한 중앙부와 대칭적 모습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강인한 은행 건축의 면모를 보임. 중앙홀 주변 사무실과 숙직실이 있으며 후면으로 금고가 연결되어 있음.

**❁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일본제18은행은 중계무역을 하러 인천에 진출한 일본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1890년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고 건물을 신축한 이후 조선식산은행, 한국흥업은행을 거쳐 지금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

**🌀 일본제58은행 인천지점**

건물 모서리 2층 발코니와 기둥, 아치문이 특징임. 1892년 일본제58은행 인천지점으로 건립된 이후 은행 합병으로 일본제130은행 인천지점, 야스다 은행으로 명칭이 바뀌다 해방 후 조흥은행 인천지점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 중구지부 사무실로 사용

**🌀 조선총독부 관측소(인천기상대)**

응봉산 정산 한국 최초 기상 관측 시설, 1904년 러일전쟁 중 일본 군부의 요청으로 임시 관측소 설치,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 관측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측소로 개칭하고 만주 지역을 총괄. 1939년 이후 조선총독부 기상대였다가 해방 후 국립중앙관상대 인천측후소로 개편, 1992년 인천기상대로 개칭. 1984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로 붉은 창고만 남아 역사관으로 사용

**🌀 미두취인소**

1899년 6월 미국, 대두, 석유, 명태, 방적실, 옥양목, 목면 등 일곱 가지 상품의 거래 기관으로 설립. 1904년부터 미국과 대두로 취급상품을 제한, 쌀의 인천이라 불릴 정도로 전국의 쌀이 인천항으로 집결되었고 정미공장과 양조공장이 들어서면서 미국 관련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

**🌀 일본 우선회사 인천지점**

개항 직후 1883년 일본 나가사키와 인천을 잇는 정기항로를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고 1888년 현재 건물을 신축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 일본군 병참사령부로 사용하였고 해방 후 해운 관련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다 2007년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로 사용. 건물 남쪽으로 바로 해안선이었으나 매립으로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사용중인 창고군이 있음.

**🌀 정미소(리키타케 정미소, 가토 정미소, 아리마 정미소, 사이트 정미소 등)**

인천은 항구와 철도 시설이 있어 한반도 각지의 미곡을 취합해 일본으로 반출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음. 1910년 6곳에 불과했던 정미소는 1938년 32곳으로 증가.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항의 무역은 미두취인소를 통해 취합된 미곡수출에 의해 좌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당시 정미소는 쌀을 탈곡하고 나서 쌀겨나 등겨가 벗겨지지 않아 이물질을 선별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선미 작업은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맡았는데 이들은 하루 열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구타, 폭언 등에 시달렸음.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임금마저 삭감하려 하자 1931년 6월 리키타케 정미소에 근무하는 선미공 중심으로 인천 지역 정미소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 발생. 여성 선미공들은 남녀간 임금 차별과 임금 인하에 반대하고 수유 시간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필수적인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의 보장과 모성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여성운동사에 중요한 의의를 갖음.

**☘ 양조회사**

일본 사카이시의 오래된 양조장인 다쿠 합명회사는 1896년 증기기관을 도입해 청주 ‘사와카메’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 일본뿐 아니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 군수품으로 보급되어 인기를 누림. 한편 인천에서 미곡상과 양조장을 운영하던 요시카네 기사부로는 다쿠 합명회사를 매수해 1919년 아사히 양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소주를 제조함. 기계식 대량 생산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 ‘금강’을 판매해 조선과 만주에서 높은 인기를 누림. 1890년을 전후해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식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초기 가내수공업 형태였던 양조산업은 러일전쟁 이후 1906년 11월 일본장유주식회사 설립과 함께 양조장 시설을 갖춘 대규모 생산으로 바뀌었다. 1908년 다카스기 노보루가 만석동 일대에 설립한 다카스기 장유조장은 일본장유주식회사와 함께 인천의 2대 간장회사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함. 1930년대 10여 곳에 이르던 인천의 간장 공장 가운데 노다 장유주식회사의 깃코류와 다카스기 장유조장의 훈도코는 맛이 뛰어나 일본과 만주, 중국까지 수출됨.

**☘ 일본제분(현 대한제분)**

인천역에서 월미도로 가다보면 곰표밀가루로 유명한 대한제분 인천공장이 보임. 이는 일본제분 인천공장에서 비롯되었음. 1925년 7월 일본제분은 인천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일본의 제분업체가 불황에 빠지며 계획이 중단되었다가 1935년 11월 하루 1,000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완공함. 해방 후 이한원이 인천공장을 불하받아 대한제분을 설립하였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시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1955년 재건되었는데 미군 구호물자인 밀을 제분하였고 1960~70년대 분식 장려운동에 힘입어 성장하였음.

**☘ 조선인촌주식회사(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조선인촌주식회사는 1917년 10월 일본인 사업가 가쿠 에이타로가 설립한 성냥공장에서 비롯되었음. 인촌(隣寸)은 성냥을 뜻하는 말로 1930년대 전국에서 생산되는 성냥의 70%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400명이 넘는 직공을 두었으며 성냥갑 접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2,500여 명에 달했다고 함. 박한 임금과 하루 13시간이 넘는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여러 번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경찰을 동원한 일본인 사주로 갖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임금 삭감 반대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해 여성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함. 배다리 일대는 성냥공장뿐 아니라 양조공장과 간장공장 등 인천항 외곽 경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항구를 통해 손쉽게 원료를 들여올 수 있고 노동력이 풍부해 노동집약적 소비산업이 발전했다고 함.

**☘ 동양방직(동일방직)**

인천의 동일방직은 1930년대 일본 5대 방직회사 가운데 하나인 동양방직이 1934년에 설립한 인천공장에 연원을 두고 있음. 1914년 6월 일본의 미에 방직과 오사카 방직의 합병으로 태어난 동양방직은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국내 소비가 정체되자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자본 유치를 통해 공업화를 꾀하던 인천부는 공장 부지를 싼값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양방직의 인천공장 설립이 유치되었음. 공장건설과 기계장비가 설치되어 1934년 3월부터 공장 조업이 본격화됨. 해방후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한국정부 산하 동양방직공사로 운영되다 1955년 서정익이 인수하여 1966년 동일방직주식회사로 바뀜. 1970년대 노동운동의 커다란 전기가 되었던 각종 사건의 현장이었으나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설비 이전으로 현재 참고로만 사용되고 있음.

**🌀 조선기계제작소 인천제작소**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광산용 기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요코야마 공업소와 1937년 6월에 설립한 조선기계제작소에서 비롯되었음. 1929년 대공황 이후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 금의 가치가 높아지자 조선기계제작소는 금광 개발에 필요한 기계를 생산했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한반도의 병참기지화가 본격화되자 육군 포탄강과 시추기, 해군 선박 엔진과 잠수함까지 생산하는 군수회사로 전환되었음. 이에 주변 노동자들이 거주할 기숙사 등을 만든 것이 팽이부리마을의 시작이라 함. 해방 후 미군정청에 접수되었다가 1976년 대우중공업 2005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됨.

**🌀 월미도**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제는 월미도 거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일본군이 사용할 군수물자의 보관과 수송기기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 1904년 7월 월미도와 인천역을 연결하는 임시 군용 철도 건설 사업을 시작. 이를 통해 월미도에 하역한 군수물자를 서울과 한반도 북부로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게 됨. 한편 1917년 11월 인천 축항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철도를 철거하고 인천역에서 월미도를 잇는 제방 건설 사업이 시작되어 1922년 4월 완공.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제방공사였으나 인천역에서 월미도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기 편리해지면서 월미도의 유원지화를 촉진하게 됨.

**🌀 흥에문**

자유공원 밑자락에 '무지개 모양의 석문'이라는 뜻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혈문(穴門)으로 불림. 조계 일대 시가지와 당시 축현역이었던 동인천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을 1905년 일본인 3명이 주축이 되어 도로 주변 지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육군 공병에게 공사를 의뢰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사 도중 암반이 노출되고 서쪽 비탈이 심해 어려움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한국 정부에 1만 6,800원의 보조금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였고 이후 축현역까지 도로 개수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어 1908년 경 공사가 마무리 됨.

**🌀 인천신사 터(인천여상)**

1889년 일본거류민들은 조계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일본인 공유 공원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영사로부터 지권을 발급받음.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조영수호통상조약의 '거류지 이외 사망 십 리 이내 토지와 주택 임대·매매 가능' 규정으로 조계 인근 토지의 지권을 발급받고 한국 정부로부터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공원 부지로 등록하여 신사 건립 계획을 밝혀 기금을 모아 1890년 낙성식을 거행함. 신사에 일본의 국신(國神)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령을 이세 신궁으로부터 분사해 안치하고 신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거류민회에 양도하여 일개 신도 종파의 사유물이 아니라 거류민 모두의 장소로 이용. 이와 함께 신사 경내 요리점 팔판루와 활쏘기장 같은 놀이시설을 유지하기도 함. 이후 항해나 어업의 수호신과 청일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는 충헌비 등이 건립되었고 해방 후 인천신사가 철거되면서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가 들어섬.

**송헌배수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특수를 노리고 이주한 일본인이 늘어남. 인천의 일본 거류민단은 1905년 2월 부족한 식수를 해결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사 끝에 일본 내무성 기사를 초빙해 한강 노량진이나 뚝섬을 수원지로 정하고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수도 설계안을 완성. 일본 거류민단의 거듭된 요청에 조선 정부는 1906년 6월 수도 부설을 결정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진전이 없자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정부의 관세 수입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입할 것을 권고하여 일본인 기사를 초빙, 수도 부설 사업을 실시함. 1910년 9월 수도관 부설 완공 후 10월 통수식을 갖고 12월 급수를 시작. 노량진에서 취수한 수돗물은 송림산 정상에 마련한 배수지에서 낙차를 이용해 거주지로 공급되었는데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2,000여 가구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일본 조계와 근처 일본인거주지에만 공급되어 조선인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음. 제수 밸브를 보호하는 원통형 시설(제수변실)이 남아 있으며 그 일대를 수도국산이라 불렀는데 근처에는 판잣집들이 빼곡하여 달동네를 형성하였음.

**남득시(랜디스, 1865~1898)**

188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를 졸업하고 1890년 리처드 엠벤스 신부의 주선으로 고요한 주교를 따라 영국성공회 선교를 위해 인천에 도착. 큰 집을 세내어 입원실과 진찰실을 꾸며 '성 루카병원(藥大人)'으로 명명하고 조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하며 선교활동을 함. 1891년에는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4개반 주 6회 영어학교를 개설하기도 함. 1892년 6살 난 고아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아원의 효시가 됨. 한국에 관한 연구에도 열중하여 1895년 「염주경」 등 3편의 불교 문헌을 출판함. 1898년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헌신적 활동을 기려 인천 외국인 묘지에 안장됨.

**고요한(찰스 존 코프, 1843~1921)**

1890년 영국 해군 군종 사제를 지낸 코프 주교가 인천 제물포에 첫발을 내디디며 1905년 떠나기까지 16년 동안 초대 주교로 조선성공회 발전에 초석을 놓음. 인천 내동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으로 교세를 확장시킴. 의료와 교육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랜디스 박사와 함께 성누가 병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으나 랜디스 박사가 죽고 의사 총원이 끊겨 1901년 문을 닫음. 또한 포교 개척지마다 진명학교 또는 신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흔적이 없음. 특히 1897년 강화읍교회를 시작으로 강화에 포교를 시작. 강화읍 교회는 1915년 조선성공회 사상 첫 조선인 신부(김희준)을 탄생시켰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성당 건물로 인정받고 있음.

**내동교회**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1890년 선교를 목적으로 코프 주교와 의료 선교사 랜디스 일행을 한국에 파견. 인천항에 도착한 이들은 선교와 의료 활동을 시작함. 1891년 인천 감리서 맞은편에 성공회 성미키엘교회를 준공했고 각국조계 인근 언덕에 성누가병원을 건립함. 랜디스는 선행을 베풀어 기쁨을 누리는 병원이라는 뜻에서 '藥善施 의원'이라 짓고 의료 구호사업에 열중하며 교세를 확장, 현재 인천내동교회는 1955년에 성누가병원이 있던 자리에 새로 건립한 것임.

### ✿ 조원시(존스, 1867~1919)

인천내리교회 제2대 담임자, 우리나라 초기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선교사. 선교, 교육, 하와이 이민, 학술 연구에 업적이 대단함. 1888년 20세로 미북감리회의 한국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옴. 처음 5년간 아펜젤러를 도와 서울 배재학당에서 교편도 잡고 문서 출판 사업을 하다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인천 지방 선교부 책임자로 파견되어 11년간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 '내리의 아버지'라 지칭될 정도의 업적을 쌓음. 가장 큰 업적의 하나는 교육사업으로 한국 최초 교회이름으로 된 교육기관인 영화학교를 개설하였고 부인 존스 여사 또한 영화여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의 개척자가 됨. 한국 역사와 문화, 전통종교에 대한 학술 연구에 조예가 깊었으며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어가 서툰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줌. 1892년 루이스 로쓰와 일러와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찬송가를 편찬했으며 한국 최초의 잡지 『The Korean Repository』의 발간과 편집에 중요한 역할을 함. 1901년 내동의 현 위치에 벽돌 예배당을 건축. 1902년 한국 최초로 하와이 이민을 떠났던 121명 가운데 내리교회 교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하와이 이민을 실질적으로 주선하고 지원했던 주인공임. 흥승하 전도사를 선교사로 하와이 이민회사를 조직하여 50명의 교민을 이민시켰다고 함. 당시 극심한 가뭄이 중부지방을 휩쓰는 힘든 상황에서 하와이의 생활이 한국보다 낫고 신앙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함. 1903년 서울로 전임.

### ✿ 내리교회

미국 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 인천에 들어와 서울로 가기까지 약 38일간 인천에 머물면서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배를 올림. 1888년 서울 정동교회 올링거는 감리교 전도인 노병일을 인천에 보내 선교 활동을 한 결과 1890년 각국조계 근처 내동에 초가집 회당을 지은 것이 내리교회의 시작임. 1891년 인천 선교 책임자로 임명된 아펜젤러는 화이트 채플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교인이 늘자 1901년 웨슬리 예배당을 완공. 건축양식은 아펜젤러가 1897년 서울 정동에 건축한 정동제일교회와 유사

### ✿ 영화여학교(영화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는 1892년 내리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존스 목사와 그의 부인 마가렛이 설립한 영화학교와 영화여학교에서 시작되었음. 개교 당시 내리교회의 조선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12년 8월 사립학교령에 의해 영화여학교로 1923년 9월 신교육령에 의해 영화여자보통학교로 변경되었음. 이후 1966년 남녀 공학으로 개편하여 셋별국민학교로 바꾸었다가 1973년 영화국민학교, 1996년 영화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

### ✿ 알렌 별장 터(전도관, 예수중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 설립에 많은 기여를 했던 호러스 알렌의 별장이 있던 곳. 선교사이면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알렌은 1897년 7월 주한미국공사에 임명되자 제물포 북감리교 선교사 조지 존스의 도움을 받아 1898년 봄, 별장 공사를 시작해 1900년 6월에 입주. 하지만 1905년 6월 한국을 떠나며 이완용의 조카 이명구에게 매각되었고 1930년대 말 이순희가 설립한 계명학원의 교사로 사용되다 1956년 소실되었음.

**☘ 전학준(드니 1873~1947)**

인천 답동성당 제4대 신부. 20대에 인천과 인연을 맺어 인천답동성당의 주임신부로 박문학교 교장으로 보육원 아이들의 아버지로 반세기를 보냄. 1896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 사명을 띠고 1899년 한국에 파견, 1904년 제 4대 인천답동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함. 가장 큰 업적은 교육사업으로 1900년 천주교 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초급과정의 교육을 베푸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항 사립 박문소학교를 설립, 1909년에는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를 운영함. 1917년 남녀 두 학교를 인천박문학교로 변경, 3자의 도움없이 전 신부의 개인 재산만으로 만들어져 인천박문초등학교에 이어지고 있음. 바오로 수녀원을 비롯해 해성보육원에 사재를 털어 농토를 기증하여 인천의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반 마련하였음. 1935년 증가하는 신자들을 위해 성당을 증·개축, 3대 서요셉 신부가 지은 구 성당의 외곽을 벽돌로 쌓아 답동성당의 모습을 일신함. 의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현대식 해성병원을 개설하기도 함. 지역관리 타향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다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인천교구 문묘원에 안장됨.

**☘ 답동성당**

1886년 프랑스와 체결한 한불조약을 계기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인정됨. 조선교구의 전교를 맡았던 곳은 파리와 방전교회였는데 1889년 파리와방전교회 소속 빌렘 신부는 인천 감리이자 신도 민선훈의 호의를 얻어 성당 건축을 위한 정초식을 가짐. 1891년 부임한 르비엘 신부는 성당 건립 비용을 마련해 1893년 임시성당을 건립, 3대 신부 마라발 신부(제3대 서요셉 신부)는 1895년 본격적 성장 건립에 착수해 1897년 고딕양식의 성당 건물을 완공함. 성당의 뾰족탑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함. 인천 답동성당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96년 제4대 전학준(드니) 신부 때로 확장 공사에 돌입하여 외곽에 벽돌을 쌓은 지 3년 만인 1937년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세 개의 종탑을 갖추고 있음. 성당은 인천지역의 교육, 의료, 사회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격동의 세월을 인천과 함께 해왔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쫓기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함. 이에 답동성당은 건축물의 문화재적 의미를 넘어 정신적, 문화적, 신앙적 가치가 있음. 특히 인천카톨릭 회관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종교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단체의 각종 모임과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1987년 6월 항쟁이 계속되고 있던 7월 경찰의 진압을 피해 '고 이한열 열사 추모 및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대회'가 철야 농성으로 열려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이어감. 동일방직 노동조합 똥물 투척사건, 김병상 신부 유신 반대 강론, 박종철 열사 추모미사 등이 거행된 답동성당과 함께 인천가톨릭회관은 인천 민주화운동의 요람임.

**☘ 타운센트 상사**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계 무역상사 직원 월터 타운센드는 1884년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에 입국하여 모스 앤드 타운센트 상회를 설립. 설립 초기 인천항 객주 서상집 등이 설립한 순신창상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미국 무역에 종사. 그러다 축적한 자본으로 1895년 상회를 타운센드 상회로 바꾸고 석유 판매를 독자적 사업으로 전개하여 1897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사와 계약을 맺어 조선의 석유 독점 판매권을 획득, 인천의 순신창상회를 총판 대리점으로 석유를 판매하였음. 이에 앞서 1896년 10월 월미도에 50만 톤의 석유를 저장할 창고를 매입하기도 함. 1900년 4월 인천 지역 일본상인 11명이 조직한 인천송함속유조합에 판매권을 팔고 1910년까지 조선에 미국산 석유를 독점 공급. 타운센트는 인천 외국인 묘지에 매장됨.

### 🌐 외국인묘지

개항과 함께 많은 외국인이 외교나 선교, 교역의 목적으로 한국에 건너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국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죽음을 맞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 묘지에 대해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이후 정식으로 협의하여 인천에는 조계지별로 외국인 공동묘지, 淸國義地라 불린 중국인 묘지, 일본인 묘지가 있었음. 점점 좁아지는 조계로 골머리를 앓던 외국 정부로서 묘지 부지는 조선 정부와 추가적 협상을 통해 조계 외곽에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세력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 특히 일본은 조계지 보다 넓은 1만 5,000여 평의 묘지 부지 확보에 성공하여 한반도 침탈 과정에 사망한 일본군 병사와 일본거류민의 묘지뿐 아니라 장례와 추모를 위한 일본계 사찰과 신사까지 만듦. 그러나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화에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묘지 부지는 도시 발달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어 중구 북성동에 있던 외국인 묘지는 청학동 외국인 묘지로 이장되었고 2017년 다시 부평 인천가족공원으로 이전되었음. 중국인 묘지는 도화동으로, 일본인 묘지는 울목동으로 이전되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와 주거지로 활용되었고 외국인공동 묘지와 마찬가지로 인천가족공원으로 축소 이전되었음.

### 🌐 인천의 공업화

인천은 개항과 함께 항구를 드나드는 사람과 물자가 증가하면서 한적한 어촌에서 근대적 도시로 성장하였음. 개항장과 경인선의 결절점에 위치한 인천은 원료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데 필수적인 교통환경이 편리했고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음. 이러한 조건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임해지역에 정미업과 양조업 같은 소비재 중심의 공장이 건설되었고 공장부지가 협소한 탓에 경인선 외곽으로 공장이 확산됨. 한편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계기로 인천은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급속하게 변화. 일제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석동 일대를 매립하거나 부평을 새로이 시가지에 편입시켜 넓은 부지에 조선기계제작소나 인천 공작창 같은 중공업시설을 건설함. 하지만 일본 대자본의 진출에 의해 촉발된 중공업화는 지역 내 중소기업 자본과 별다른 연관관계를 맺지 못한 채 식민지적 이중 구조를 가지며 중공업 분야의 예측성을 강화해 해방 후 한반도의 공업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인천인물 100인』, 다인아트(2009)
- 서울역사편찬원, 『개항기 서울에 온 외국인들』,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16)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2005)
- 이병경·문순희·박진한,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 북멘토(2019)
- 이영민·이호상·손승호·안종천·윤현위, 『이주로 본 인천의 변화』, 보고서(2019)
-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동아아시아사(2018)
- 인천광역시, 『인물로 보는 인천사』, (2013)
- 인천광역시, 『외국인의 기록으로 보는 인천 근대-Korean Repository, Korea Review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교실(2007)
- 정성호, 『화교』, 살림출판사(2013)

### 2 동영상 자료

- 동아아시아사 랜선 답사 인천개항장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https://www.youtube.com/watch?v=g73qyeUc89I>  
1부 제물포에 분 태풍 / 2부 조계지 조선 속 남의 나라 / 3부 최초의 시작 / 4부 차이나타운의 추억 / 5부 수탈의 그늘 / 6부 근대화의 명암, 기차 / 7부 세계로의 첫 걸음

### 3 기사 자료

- 인천일보, 2018.02.07. 인천에 잠든 외국인 이야기2. 내과의사 약대인(藥大人) 랜디스  
<http://ssl.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015>
- 인천일보, 2018.02.21. 인천에 잠든 외국인 이야기4. 제물포의 무역상, 미국인 타운센드  
<http://ssl.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519>

<부록>

인천 건축물 카드 (앞)

			
1.【한미 100주년 기념탑】	7.【인천시민애집】	가.【각국공원】	사.【인천부청사-중구청】
			
2.【짜장면 박물관】	8.【인천역】	나.【내리교회-영화학교】	아.【알렌 별장】
			
3.【인천항 갑문】	9.【성남박물관】	다.【일본 제1은행】	자.【미두취인소】
			
4.【신포국제시장】	10.【의선당】	라.【일본우선주식회사】	차.【월미도】
			
5.【인천내동 성공회성당】	11.【답동성당】	마.【러시아 영사관】	카.【제물포 구락부】
			
6.【카페팻알】	12.【인천 화교학교】	바.【동양방적】	타.【인천신사】

<부록>

인천 건축물 카드 (뒤)

<p><b>1. 【한미 100주년 기념탑】</b> - 존스톤 별장터, 각국공원 13도 대표회와 한성정부 흥진 존스톤-영국인 여름별장 랜드마크, 6·25소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p>	<p><b>7. 【 인천시민애집 】</b> - 고노 다케노스케주택 인천시장공관, 역사자료관 계림장업단 조직 미두취인소 이사 아시히양조 이사 월미도유원회사 사장</p>	<p><b>가. 【 각국공원 】</b> - 세창양행 사택터 각국공원 → 서공원 → 만국 공원 → 자유공원(맥아더) 세창양행 : 독일     뮐렌도르프     최초 광고 고백</p>	<p><b>사. 【 인천부청사 】</b> - 일본영사관, 인천중구청</p>
<p><b>2. 【 짜장면 박물관 】</b> - 공화춘 중화요리점 짜장면-쿨리 화교-화교배척사건     차별 정책 → 재이주 우리탕</p>	<p><b>8. 【 인천역 】</b> 1899년 한국최초 철도 미국인 모스-운산금광 콜브란-전차 일본의 수탈</p>	<p><b>나. 【 내리교회 】</b> - 영화학당 아펜젤러, 언더우드 조원시 하와이 이민</p>	<p><b>아. 【 알렌 별장 】</b> 의사 광혜원 설립 주한 미국공사관 공사 하와이 이민-테슬러</p>
<p><b>3. 【 인천항 갑문 】</b> 10m 넘는 소수간만의 차 일본 청원-축항사업     1918년 준공 김구</p>	<p><b>9. 【 성냥박물관 】</b> - 조선인촌주식회사 경공업 발달-정미소, 양조 공장, 장유 회사 노동집약 여성노동-저임금 장시간, 파업</p>	<p><b>다. 【 일본 제1은행 】</b> - 인천 개항 박물관 화폐정리사업, 메가타 일본제18은행 일본제58은행 전환국(전동)</p>	<p><b>자. 【 미두취인소 】</b> 전국 쌀의 인천항 집결 항구와 철도 발달 정미소, 양조공장 미국산업 발달 반복창</p>
<p><b>4. 【 신포국제시장 】</b> - 공설시장 러일전쟁 이후 중국인 증가 신포시장 인근 채소 판매 1914년 총독부 시장규칙 1927년 공설일용품시장 조 례 공설시장(해물, 청과) 설치</p>	<p><b>10. 【 의선당 】</b> - 중국식 사원 극빈자 장애인 구제 선당에 기원 화교 질서유지와 상호협력</p>	<p><b>라. 【 일본우선주식회사 】</b> - 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 나가사키와 정기항로 운영 물류수송 독점 아트플랫폼과 한국근대문학 관은 군회조점, 창고 신포역 2번출구-세관 창고</p>	<p><b>차. 【 월미도 】</b> 인천 축항 사업 월미도 제방건설-김구 스탠다스 석유회사 창고 일본제분-&gt;대한제분</p>
<p><b>5. 【 인천내동 성공회성당 】</b> 고요한 주교 남득시 박사-약대인 성누가 병원-러일전쟁 치료</p>	<p><b>11. 【 답동성당 】</b> 빌렘 신부-안중근 세례     뤼순 면회 화교 건축-화공(華工) 박문학교 동일방직 동물 투척 사건 박종철 열사 추모미사</p>	<p><b>마. 【 러시아 영사관 】</b> - 러시아영사관 터 사바틴-을미사변 목격     해관 근무 러일전쟁</p>	<p><b>카. 【 제물포 구락부 】</b> 각국조계 외국인 친목도모 사바틴 설계 알렌, 우리탕</p>
<p><b>6. 【 카페팻알 】</b> - 대화조 사무실 인천항 하역 인부 관리 히로이케 데이시로 조운업 일본식 상가주택</p>	<p><b>12. 【 인천 화교학교 】</b> - 청국영사관터 위안스카이, 임오군란 파견 1884년 청국조계 설치 영사관 옆 선린동 주택-순태 양복점</p>	<p><b>바. 【 동양방직 】</b> - 동일방직 인천공장 1930년대 일본 5대 방직회사 대공황여파 1934년 인천설립 동일방직-강경애 소설     『인간문제』 배경 1970년대 노동운동 현장</p>	<p><b>타. 【 인천신사 】</b>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890년 6월 낙성식 이세 신궁에서 분사 청일전쟁 전사자 추모비 동공원</p>

# 1 들어온 사람들

## 2. 한국 근대사와 외국인

### 가. 수업 요약

수업유형	모의재판, 토의·토론	총 차시	5	
주제	한국 근대사와 외국인			
핵심 질문	외국인은 한국 근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해당 과목 및 단원명	『한국사』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성취기준	<p>[10한사02-02]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살펴보고, 개화 정책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여러 세력의 대응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파악한다.</p> <p>[10한사02-03]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러 세력이 추진한 근대 국민 국가 수립 노력을 탐색한다.</p> <p>[10한사02-04]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p> <p>[10한사02-05]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략과 이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p> <p>[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p>			
성공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 자기관리역량 ■ 문제해결역량	■ 의사소통역량 ■ 협력역량	■ 다양성존중역량
	교과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자료·정보 활용 역량 □ 자기 성찰·계발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설계 의도	<p>구한 말 조선은 기존의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중화질서 체제에서 벗어나 근대 국제질서로 합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조선에 외국 정부에서 파견한 외국인, 취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무역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조선에 거주하게 된다.</p> <p>당시 조선은 근대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자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으며, 이를 조선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외국의 동향을 살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조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 <p>외국인들이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의 관점에서 인물을 평가하는 과정을 모의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역사 탐구력 및 역사 판단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p>			
주요 산출물	한국 근대에 활동했던 인물의 행적 및 자료, 모의 재판 대본, 모의재판 후속 토론 등			

나. 수업 개요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대기 조선에서 활동한 외국인들의 사진을 제시한다.</li> <li>2. 사진 속 인물의 직업이 무엇인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li> <li>3. 제시한 외국인 중 현재 다시 평가하고 싶은 인물 2명을 선정하여 한국 근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들이 개별로 조사하도록 한다.</li> </ol>	학생들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기기 및 환경 제공 (와이파이, 태블릿, 노트북 등)	교사 참고자료 ■ 근대기 조선에서 활동한 외국인사신행동지 ■ 외국인의 행적 조사
실행	2~4	<b>입장 선정</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자 조사한 외국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재판하고 싶은 인물 1명을 선정하여 2개의 모둠으로 편성한다.</li> <li>2. 같은 외국인을 선정한 학생들을 하나의 모둠으로 하여 죄목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한다.</li> <li>3. 죄목에 따라 검사측으로 설지, 변호사측으로 설지 결정하여 소모둠으로 편성한다.</li> <li>4. 소모둠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론과 상대측의 예상되는 반론 등을 작성한다.</li> </ol>	학생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소모둠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편성할 수도 있음	활동지 ■ 외국인의 행적 평가 및 재판 준비
		<b>모의 재판 대본 작성</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모둠별 입장에 따라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한다.</li> <li>2. 소모둠별로 작성한 모의재판 대본을 모둠별로 종합하여 다듬는다.</li> </ol>	모의재판 대본을 제시하나 본 수업은 역사 수업으로 반드시 형식을 지키기보다 역사 사실의 정확성, 역사 판단력에 초점을 둘 것	수업 참고자료 ■ 법률용어사전 ■ 사법정책연수원 모의재판 시나리오 예시
		<b>결과물 개발 및 검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한다.</li> <li>2. 다른 외국인을 선정했던 학생은 배심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li> <li>3. 배심원 의견서를 종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li> </ol>	판결문은 다음 차시에 발표함	수업 참고자료 ■ 사법정책연수원 모의재판 시나리오 예시 활동지 ■ 배심원 의견서
<b>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의 재판의 판결문을 발표한다.</li> <li>2. 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 방향 등의 후속토의를 진행한다.</li> </ol>		활동지 ■ 후속 토의



2 외국인의 행적 평가 및 재판 준비

<b>외국인의 행적 평가 및 재판 준비</b>	(    )학년 (    )반 (    )번 이름 (                    )
<p><b>인물명 :</b></p> <p>활동 단서 - 개인별로 모아온 자료를 이용하면 활동하기 쉽습니다.</p>	
<b>잘한 점</b>	<b>잘못한 점</b>
↓	↓
<b>입론(우리측 논거) 및 재반론</b>	<b>상대의 예상되는 반론</b>

### 3 법률 용어 사전

용어	설명
민사재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재판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는지, 죄가 인정된다면 적절한 형벌이 무엇 인지를 결정하는 재판
원고	법원에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소장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청구하는 취지와 그와 같이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적혀 있는 문서
기소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배심원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하고, 만일 유죄로 평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절한 형량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
공소장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묻는 행위
구형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인용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
기각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
승소	재판에서 이기는 것
패소	재판에서 지는 것
상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
항소	상소의 일종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것

#### 4 모의재판 절차 예시

##### 1. 모두절차

###### 재판부의 입장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4고합1000호 공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000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 판 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 사] (문공익)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예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 호 인] (김승소)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능)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등

[재 판 장]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피 고 인] 예.

[재 판 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 고 인] (최험약)입니다.

[재 판 장]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 고 인] (1992년 9월 9)일입니다.

[재 판 장]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입니다.

[재 판 장] 등록기준지는 어디인가요?

[피 고 인] (서울 은평구 불광로)입니다.

[재 판 장]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 고 인] (대학생)입니다.

[재 판 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리에 앉는다)

**검사의 모두진술**

[재판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행적 진술 및 잘못 진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죄명 언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피고인] 예.

[재판장]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판장]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호인 김승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변론 진술).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재판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을 밝히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검사]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김소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판장]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계획을 밝히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진범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명+증인 이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장] (강포청) 증인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변호인] (강포청) 증인에게는 (질문할 사항은 말한다)

[재판장]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은 좌우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고, 배석판사들은 작은 목소리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한다)

[재판장]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 2. 증거조사

###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 판 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나요?

[검사] ( )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 ( )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나란히 선다)

[재 판 장]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실무관은 증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한다)

(재판장은 신분증과 증인들의 얼굴을 대조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실무관을 통해 증인들에게 신분증을 돌려 준다)

### 위증의 벌 경고 등

[재 판 장]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 인 들]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재 판 장]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 ), ( )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 인 들] 예.

### 증인선서

[재 판 장]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 )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증인은 왼손으로 선서서를 든다)

[증인 ( )] (당당한 목소리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 판 장] 검사가 신청한 ( )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 ) 증인의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검사측 증인은 증인석에 앉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다)

### 증인에 대한 신문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

### 증거조사 종결

[재 판 장] 이상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증인 ( )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피고인은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증인 ( )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재 판 장]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검사] 검사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 3.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 피고인신문

[검사]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신청합니다.  
 [재 판 장]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재 판 장]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검사는 신문하고 피고인은 답변한다)  
 [검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변호사는 신문하고 피고인은 답변한다)  
 [변호사] 이상입니다.  
 [재 판 장] 이것으로 피고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 검사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 (피고인이 범인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술한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 처벌 수위를 언급한다 )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하십시오.42)  
 [변호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 이유 혹은 감형을 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술한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 무죄 혹은 처벌 수위를 언급한다 )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

[재 판 장]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피 고 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과 현재 심경을 구술한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다)  
 [재 판 장] 이상으로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 )에 대한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한다)  
 (모의재판 지도관은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에게 판결을 예측해 보도록 한 후 유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과 무죄판결을 예측하는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유도한다)

#### 4. 판결선고

##### 재판부의 재입정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 입장하여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 판결선고

[재판장] 지금부터 인천지방법원 피고인( )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나열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 무죄 혹은 처벌 수위 언급)’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원경위]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고,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나간다)

5 배심원 의견서

<b>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서</b>		( )학년 ( )반 ( )번 이름 ( )
인물명		
재판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문		
인물에 대한 나의 평가		
내가 생각하는 처벌 수위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한 점들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한 점들		



## 라. 교사 참고 자료

### [제시할 수 있는 외국인 예시]

#### 베델3)

베델은 흔히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베델은 일본 고베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상업인이었다. 아버지 토마스 헨크 베델은 양조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한 회사원이었으며, 베델이 학교에 다닐 무렵인 1886년 일본 고베에 일본 공돌품을 취급하는 '니콜 앤드 컴퍼니'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베델은 학교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가계를 이을 미래의 상업인으로 성장했으나 러·일 전쟁이 발발하여 이 사건을 취재하는 통신원 명단에 포함되어 언론인의 길로 나섰다.

#### 뮐렌도르프

조선의 첫 번째 서양인 관료로서, 그에게 권력과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뮐렌도르프 퇴임 이후 그의 업무와 권한은 메릴과 데니에게 분담되고 실권 또한 축소시켰다. 첫 서양인 관료이기 때문에 뮐렌도르프의 생김새,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등이 조선인의 흥미를 끌었고 서양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고 개량 한옥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창호지 창문과 방문을 유리문으로, 대청마루를 응접실로 활용하거나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 실내에 난로나 스팀 장치를 하는 것 등의 주거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악대로 하여금 서양 음악을 소개하였는데 김이 나는 접시와 그릇을 손에 든 채로 놀라움에 꼼짝 못하고 있는 조선인의 하인들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다. 조선에 서구의 문물을 이식시키고 문명화시키겠다는 열정을 갖고 여러 개혁안을 시행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 푸트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결과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초대 조선주재미국 공사이다. 그 이전에 슈펠트가 인천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 때 논쟁점은 숙박논쟁에 관한 내용이다. 푸트 공사는 한양의 궁궐로 입궐할 때 조선 정부가 서양 여자를 수도로 들어오도록 허락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여 부인을 두고 한양으로 들어간 일화가 있다. 통신시설의 불편과 청, 일본에 비하여 조선의 중요성이 떨어져 외교활동의 재량권이 컸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상인의 이익을 도모했다. 농무목축시험장에 필요한 소, 말, 돼지 등 가축 조달이나 건청궁에 전기등 설치를 에디슨전등회사를 알선하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조선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갑신정변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정변 후 재량권을 발휘해 거중조정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 원세개

임오군란의 진압을 위하여 조선이 청병하자 책임자 마건충의 수하로 조선에 들어온 인물이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3일째 되던 날 원세개가 이끄는 청군이 국왕이 있던 곳으로 침입해 정변을 주도하던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갑신정변을 좌절시켰다. 1885년 흥선대원군을 호송하여 다시 조선에 왔다가 귀국 후 다시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책을 받아 북양대신 이홍장의 대리인으로 조선에 다시 왔다. 그 후 상무뿐만 아니라 외교까지 맡게 되는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을 가진 외교관으로서 조선으로 파견됐고, 조선의 개화정책을 방해하면서 원세개의 근친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위세를 키웠다. 대표적으로 궁궐 내에서 국왕만 탈수 있는 사인교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조선이 청의 '숙방'이라고 주장했다.

#### 베베르

러시아의 레쉴스키 함대가 청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러시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게 됐다. 이 때 청, 일본에서의 외교관 경험이 있는 베베르에게 조선과의 공식 관계 수립이라는 과제가 부여됐다. 이는 조선이 다른 열강에게 점령당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뮐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베베르는 조선과 고종에 대해 공감하여 러시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급진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조선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베르와 러시아 정부 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다. 특히, 베베르-고무라 각서를 체결할 당시 경부전선선의 조선 이관 문제에 대해 러시아 훈령에 불구하고도 완고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외의 외국인 : 이토 히로부미, 뮐텔, 언더우드, 아펜젤러, 콜브란, 손탁, 비숍, 사바틴, 에케르트, 험버트 등

3)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인물의 경우에는 모의재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시 실정법의 위반 여부 혹은 동아시아 관점에서 고려하여 모의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비델



이토 히로부미



뮐렌도르프



뮌텔



푸트



언더우드



원세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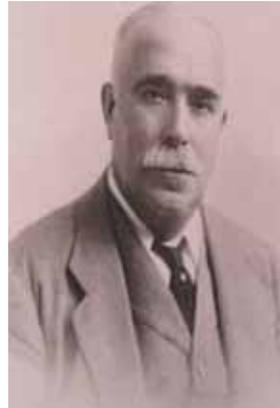
아펜젤러



베베르



콜브란



비숍



손탁



사바틴



에케르트



힐버트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서울역사편찬원, 『개항기 서울에 온 외국인들』, 서울역사편찬원(2016)
- 최상훈·이영호·김한중·강선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2007)
- 정선영·김한중·양호환·이영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2014)

### 2 인터넷 자료

- 사법정책연구원(모의재판 시나리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1&boardSeq=7&search=all&searchName=%EB%AA%A8%EC%9D%98&researchYears=&curPage=10&pageNum=1&seq=19>

#### 베델 사진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400&code=kc\\_age\\_4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1400&code=kc_age_40)

#### 이토 히로부미 사진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4200&code=kc\\_age\\_4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n404200&code=kc_age_40)

#### 뮐렌도르프 사진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A%B8\\_%EA%B2%8C%EC%98%A4%EB%A5%B4%ED%81%AC\\_%ED%8F%B0\\_%EB%AC%84%EB%A0%8C%EB%8F%84%EB%A5%B4%ED%94%84](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A%B8_%EA%B2%8C%EC%98%A4%EB%A5%B4%ED%81%AC_%ED%8F%B0_%EB%AC%84%EB%A0%8C%EB%8F%84%EB%A5%B4%ED%94%84)

#### 뮌텔

[https://ko.wikipedia.org/wiki/%EA%B7%80%EC%8A%A4%ED%83%80%EB%B8%8C%EC%83%A4%EB%A5%BC%EB%A7%88%EB%A6%AC\\_%EB%AE%88%ED%85%94](https://ko.wikipedia.org/wiki/%EA%B7%80%EC%8A%A4%ED%83%80%EB%B8%8C%EC%83%A4%EB%A5%BC%EB%A7%88%EB%A6%AC_%EB%AE%88%ED%85%94)

#### 푸트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09985>

#### 언더우드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9F%AC%EC%8A%A4\\_%EA%B7%B8%EB%9E%9C%ED%8A%B8\\_%EC%96%B8%EB%8D%94%EC%9A%B0%EB%93%9C](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9F%AC%EC%8A%A4_%EA%B7%B8%EB%9E%9C%ED%8A%B8_%EC%96%B8%EB%8D%94%EC%9A%B0%EB%93%9C)

#### 원세개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5%88%EC%8A%A4%EC%B9%B4%EC%9D%B4>

#### 아펜젤러

[https://ko.wikipedia.org/wiki/%ED%97%A8%EB%A6%AC\\_%EC%95%84%ED%8E%9C%EC%A0%A4%EB%9F%AC](https://ko.wikipedia.org/wiki/%ED%97%A8%EB%A6%AC_%EC%95%84%ED%8E%9C%EC%A0%A4%EB%9F%AC)

베베르

<https://namu.moe/w/%EC%B9%B4%EB%A5%BC%20%EB%B2%A0%EB%B2%A0%EB%A5%B4>

클브란

<http://www.webegt.com/gallery/gallery%2020130301KCCC-Bostwick.html>

비숍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2%AC%EB%B2%A8%EB%9D%BC\\_%EB%B2%84%EB%93%9C](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2%AC%EB%B2%A8%EB%9D%BC_%EB%B2%84%EB%93%9C)

손탁

<https://namu.wiki/w/%EC%86%90%ED%83%81%ED%98%B8%ED%85%94>

사바틴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7023600005>

에케르트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80%EC%B8%A0\\_%EC%97%90%EC%BC%80%EB%A5%B4%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80%EC%B8%A0_%EC%97%90%EC%BC%80%EB%A5%B4%ED%8A%B8)

헐버트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A8%B8\\_%ED%97%90%EB%B2%84%ED%8A%B8](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A8%B8_%ED%97%90%EB%B2%84%ED%8A%B8)



# 2

## 나간 사람들

### 2-1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 2-2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제작하기





## 2 나간 사람들

### 1.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 가. 수업 요약

수업유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총 차시	6
주제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		
핵심 질문		구한말 사람들은 왜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 해외로 이주를 하였을까?		
해당 과목 및 단원명		『한국사』 II-6-03. 해외 이주		
성취기준		[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 [12동사05-03]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성공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교과역량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설계 의도		구한말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국, 일본으로 이민을 떠났다. 1902년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떠나는 이민자를 실은 배가 인천항을 출발하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미주 지역으로의 첫 이민이었다. 이후 브라질의 애니깁 농장, 멕시코로의 사기 이민, 미국 본토로의 이민 등 다양한 이민이 이루어졌다.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동 속에서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민자들은(emigration) 우리나라 근현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인 한 부분이며 이들이 정착한 나라에서 한인 타운을 형성하면서 그 나라의 근현대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이 이민자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파악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및 그 후손들과의 연대를 고민하고 공감하는 데 이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가 있다.		
주요 산출물		프레젠테이션 자료, 연극 동영상, 시나리오 등		

나. 수업 개요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유의점	교수학습자료	
도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 재외동포현황(<a h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2">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2</a>) 세계에 뿌리 내린 한인이주사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8osfqxJdvxY">https://www.youtube.com/watch?v=8osfqxJdvxY</a>) - 영상 관련 탐구 질문 만들기 하브루타</li> <li>■ 프로젝트 설정 - 모둠별 탐구 질문 발표 -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소개 - 1860년대 이후 조선의 상황, -근현대 시기를 살고 있던 당시 한국인으로 추체험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민 갈 나라를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재외동포 현황 그래프 &lt;자료1&gt; 2021 재외동포현황 설명</li> <li>■ 재생속도를 1.25로 높임</li> <li>■ 브레인스토밍 모둠(3~4명 모둠 구성)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자료2&gt;, &lt;자료3&gt; 활용</li> <li>-교사가준비한 탐구 질문 외에 모둠별로 3개씩 작성해서 발표하기</li> </ul>	
실행	주제 선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구상 - 세계 지도에 이민 갈 나라와 항로, 최종 정착지를 표시함 - 이주하는 시기에 따라 동거나 의미가 다른 국가들은 '이민 갈 나라, 항로' 뿐 아니라 '시기'도 고려해서 표시함 - 한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 ([헤로니모] 감독 전후석, 정체성의 가치를 말하다 - YouTube) - 이민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기획자의 의도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얼마만큼 일치시킬 것인지 논의 - 1인극(모노드라마), 연극, 다큐멘터리, 동영상 등 형식 구성 - 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사회, 지리 교과서 및 부도 등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민지까지의 경로를 표시하게 함</li> <li>■ &lt;자료4&gt;의 이민경로 표시하기 지도에 운송 수단, 일정, 최종 정착지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 갈 국가가 겹치지 않도록 모둠별로 조정함</li> <li>-&lt;자료4&gt;의 이민경로 지도 활용</li> <li>-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논의하도록함</li> <li>-&lt;자료5&gt; 자료 구상</li> </ul>
	자료 수집 및 분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제작 -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넣을 내용 설정 - &lt;자료5&gt; 프레젠테이션 자료 구상 학습지 활용 - 시나리오 구성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제작 - 연극 활동, 연극 동영상 촬영 - 각 모둠별로 4분 내외 분량의 연극/동영상을 제작하되 대사는 암기를 원칙으로 함 - 모둠원들의 역할 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동영상 촬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li> <li>■ 모노드라마를 희망하는 학생 수용</li> <li>■ 1인 다역/엑스트라 허용</li> <li>■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차시는 변동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 재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역사콘텐츠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파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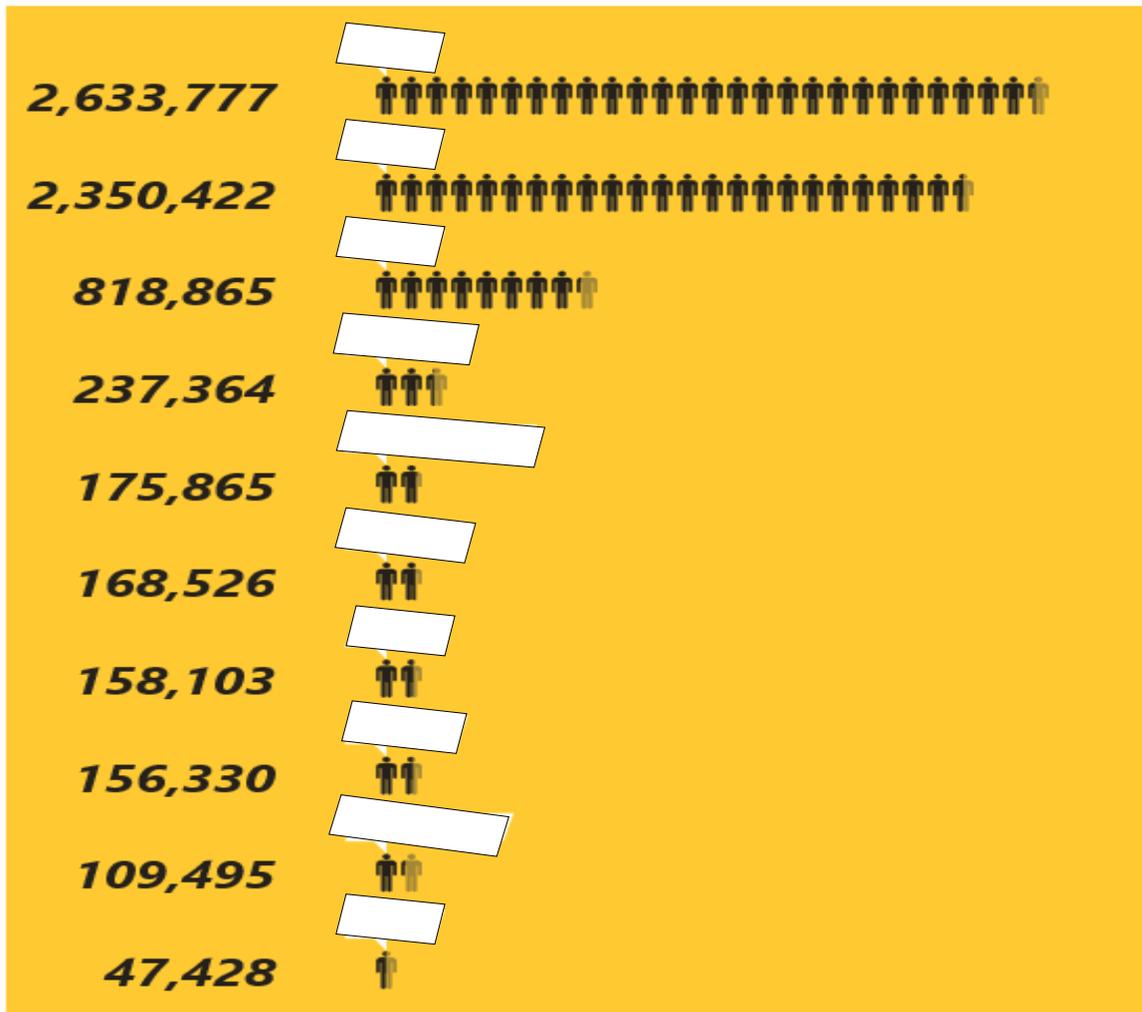
<p>결과물 개발 및 검토</p>	<p>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li> <li>- 가상의 이민자를 설정하고 역사콘텐츠를 적용한 연극 또는 동영상 발표</li> <li>- 교사자료 &lt;자료6&gt;학생 활동 예시자료 참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둠의 활동물을 보면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실시</li> </ul>	<p>&lt;자료6&gt;의 자기평가지 및 모둠평가지 활용</p>
<p>프로젝트 결과 발표 또는 정리</p>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진과의 대화/질의, 응답 (전체 문답)</li> <li>- 역사적 사실, 기획 의도, 연극 및 동영상 속에 드러난 역사콘텐츠의 영향을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6&gt;의 모둠평가지 활용</li> <li>■ 학생들이 사용할 문답지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됨</li> </ul>	<p>제작진과 관객석을 마주보게 하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p>
<p>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gt;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배운 것, 실천할 것 기록</li> </ul>		<p>&lt;자료7&gt;성찰일지 작성</p>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자료 1

2021 재외동포 거주 국가현황 - 각 나라의 명칭 맞추기

2021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캐나다, 러시아, 독일

자료 2

## 모둠별 질문 만들기 하브루타

### 1. 영상 시청하기: 세계에 뿌리 내린 한인 이주사



현재 약 180개국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낯선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처음 이민을 시작한 사람들은 언제, 왜 이민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그들은 이민지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인 이주의 역사는 네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각 시기별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자. 이들은 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8osfqxJdvxY>

### 2. 내용 정리

구분	시기	이주민수	이민 이유	특이점 (출발지, 사는 모습, 활동 등)
1시기(조선, 대한제국기)	19세기 중반~1910년			
2시기(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			
3시기(8·15 해방 이후)	1945년~1962년			
4시기(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1962년~현재			

### 3. 모둠 토론하기: 모둠 질문을 논제로 토론하고 종합의견을 도출한다.

모둠 질문	
발언자	발언 내용
1.	
2.	
3.	
4.	
종합의견	

4. 인천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경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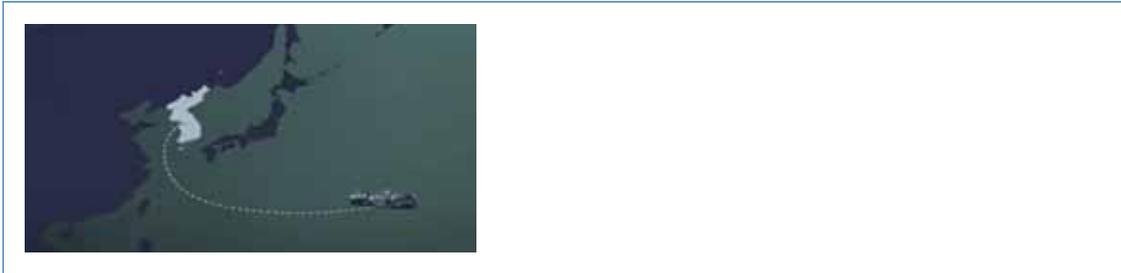
4-1. 하와이로 떠난 사람들

인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하와이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4-2.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

인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멕시코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4-3. 쿠바로 떠난 사람들

멕시코에 도착한 사람들 중 쿠바로 떠난 사람들이 재미민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


5. 한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주민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해 보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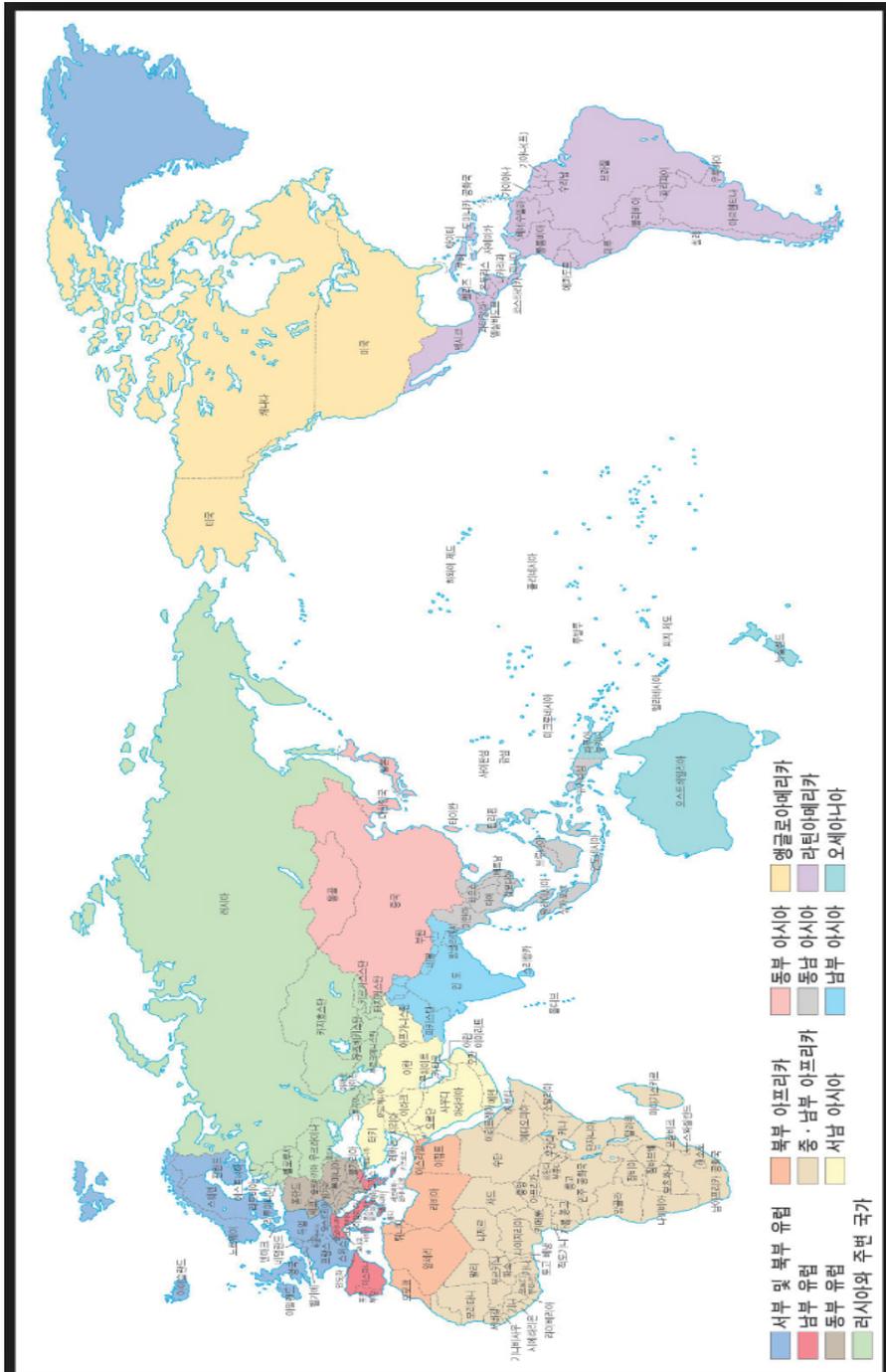
자료 3

모둠별 탐구 질문 발표 자료

1	1860년대부터 해외 이민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의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이 겪은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3	인천항에서 멕시코행 화물선을 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4	멕시코에서 속은 것을 안 이주민들은 왜 돌아올 수가 없었을까?
5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간 것일까?
6	8·15 광복 이후 한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디로 이주를 했을까?
7	뉴욕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8	공식적인 이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9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이유로 이민을 했을까?
10	우리가 한인 이민자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11	
12	
13	
14	
15	

자료 4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이민 경로 표시하기



모듬별로 선정한 나라에 도착하기 위한 경로를 표시하세요. 1900년~1965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시간, 준비물, 낮 선 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논의해 봅시다. (www.google.co.kr/maps 접속하여 인천에서 거리측정을 누른 후, 선택한 국가(도시)에 점을 찍어 이동 거리를 가늠한다.

자료 5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 제작**

■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연극/동영상 자료 제작

<p>프레젠테이션 자료 구상 (모둠이 선택한 각 나라의 한인 이민자들 자료 조사)</p>	
<p>연극/동영상 기획 의도 (한인 이민자들의 삶 중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p>	
<p>대본 작성</p>	

자료 6

자기평가지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평가자: 학년    반    번 이름 (            )

프로젝트명	
일시	
프레젠테이션 자료, 연극/동영상 발표 수업에 대한 자신의 평가	
수업 후 느낀 점,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동료평가(모둠)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 프로젝트

● 모둠 내 상호평가

모둠명	활동일			
모둠원 이름	평가항목	상	중	하
	모둠 활동 중 참여도가 높았는가?			
	모둠 활동 중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과제 완성을 도왔는가?			
	모둠 활동 중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 완성에 기여하였는가?			
	특기사항			
	모둠 활동 중 참여도가 높았는가?			
	모둠 활동 중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과제 완성을 도왔는가?			
	모둠 활동 중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 완성에 기여하였는가?			
	특기사항			
	모둠 활동 중 참여도가 높았는가?			
	모둠 활동 중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과제 완성을 도왔는가?			
	모둠 활동 중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과제 완성에 기여하였는가?			
	특기사항			

● 모둠 활동 상호평가

▶ 평가 대상자:

평가할 내용	5	4	3	2	1
1. 기획 의도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2. 기획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3. 연극/동영상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가?	<input type="checkbox"/>				
〈특기사항〉					

▶ 평가 대상자:

평가할 내용	5	4	3	2	1
1. 기획 의도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2. 기획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3. 연극/동영상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가?	<input type="checkbox"/>				
〈특기사항〉					



라. 교사 참고 자료

**자료 1** 2021 재외동포현황

- 외교부는 2020.12월 기준 국가별 재외동포현황을 조사·집계한 「2021 재외동포현황」을 12.24.(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조사 결과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년 전인 2018.12월 기준 동포 규모(7,493,587명)와 비교할 때 2.2%(168,444명) 감소한 수치이다.
  -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3,622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재외국민 수가 직전 통계 대비 6.53%(175,59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학생 수가 293,157명에서 171,343명으로 41.55%(121,814명) 감소

※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18,045	1,322,133	171,343	2,511,521	4,813,622
증감(명)	-13,737	-40,042	-121,814	-175,593	7,149
증감률(명)	-1.33	-2.94	-41.55	-6.53	0.15

-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의 재외동포가 2.96% 증가한 가운데,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동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북미의 경우 캐나다 내 동포 수는 소폭(1.80%) 감소하였으나, 미국 내 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3.41%(86,795명) 증가

※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중동
총계(명)	3,169,287	489,420	2,871,141	90,289	677,156	27,850
(백분율(%))	(43.27)	(6.68)	(39.20)	(1.23)	(9.24)	(0.38)
증감(명)	-117,076	-103,021	82,409	-13,328	-9,903	-7,525
증감률(%)	-3.56	-17.39	2.96	-12.86	-1.44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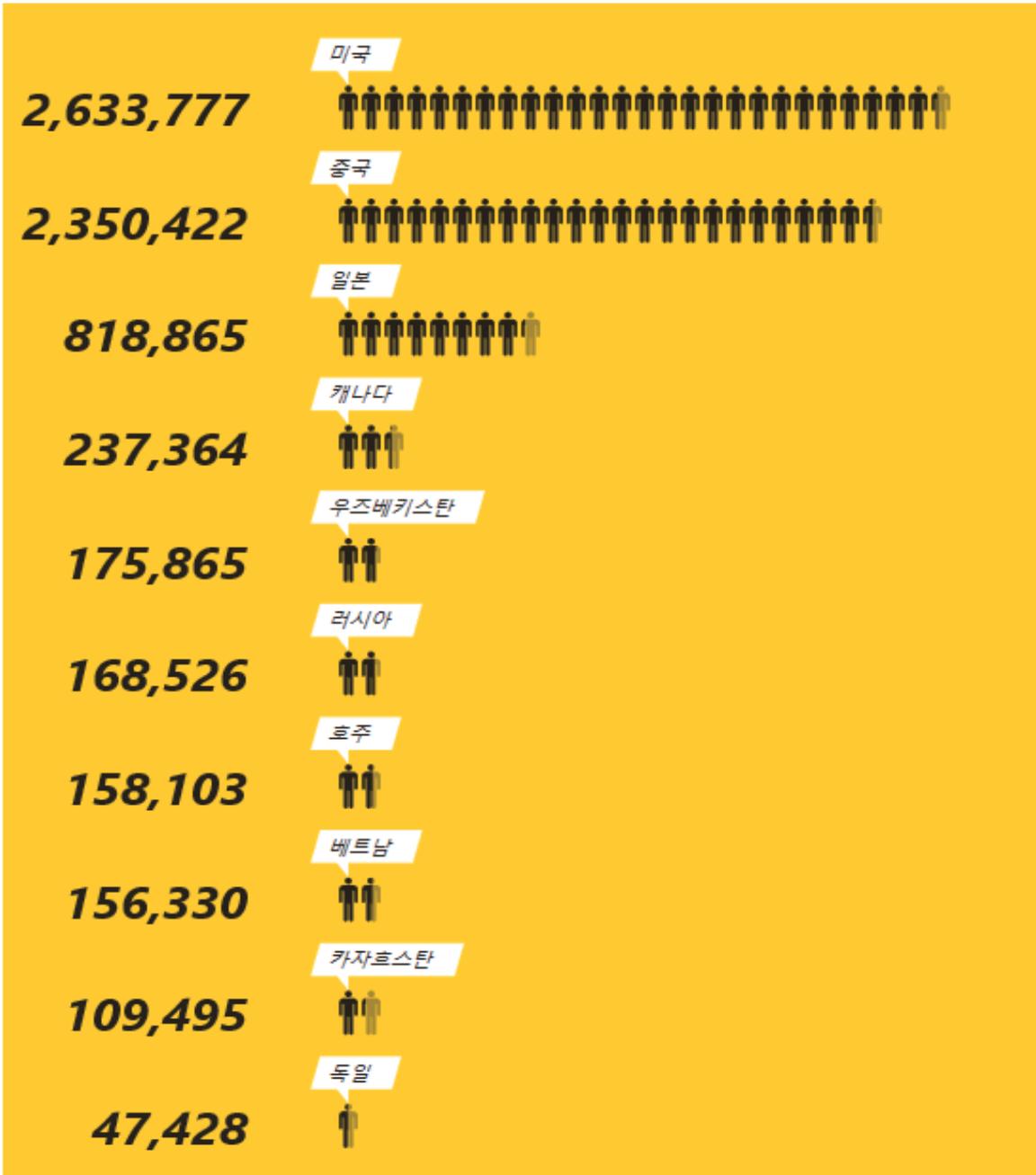
- 한편, 우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33,777명), 중국(2,350,422명), 일본(818,865명), 캐나다(237,364명), 우즈베키스탄(175,865명), 러시아(168,526명), 호주(158,103명), 베트남(156,330명), 카자흐스탄(109,495명)으로 파악되었다.
  - 지난 조사에서 10위였던 필리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외동포가 61.20% 급감(85,125명 → 33,032명)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14위를 기록

-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2021.12.24.(금)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

자료 2 2021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현황 퀴즈 정답

## 2021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현황



국가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캐나다, 러시아, 독일

**자료 3** 한인 이민사 속 인천의 특수성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00일 비전 선포식’에서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유 시장은 “인천은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과 상징성, 역사성 측면에서 재외동포청이 세워질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으로 나뉘어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했다. 지난 달 20일 미국 방문 중 뉴욕 교민과의 간담회에선 “재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보고 이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청 설치는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도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해 “한국인의 공식 이민 출발지이자 국제기구 15개가 있는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공항·항만 등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민사적으로 역사성, 재외동포 거주를 위한 송도아메리카 타운이 있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22.10.06. -

**자료 4** 재외 한인의 시대별 변천

재외한인의 이산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국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등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 비교해서 짧다. 그렇지만 재외한인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 호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다양한 정치경제 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시도했던 민족은 역사상 그리 흔치 않다. 재외한인 이산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로 이주하였다.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유민(流民)으로서 당시 입국이 금지되었던 지역에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갔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1902~19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와이 거주 일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1905년에 한인 이주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1905년까지 7,226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다.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결혼의 형태로 1,000여명 가량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서 이민 가정을 형성하였다. 중남미로의 이주는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1,033명이 떠난 것이 효시이며, 이들 중 300여명이 1921년에 경제난을 피해 쿠바로 재이주하였다. 이들과 후손들은 모국과의 연계가 끊어지자 아주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다 현지 사회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 난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 만주지역의 한인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약 25만 명 정도가 집단이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일하였으며,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재일한인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한 1945년 8월까지 약 23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가 패전 후 많은 한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자 급속히 감소하여 1947년에는 598,507명으로 급감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천여 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동일시기에 5천여 명 가량의 아동들이 전쟁고아로서, 혼혈아로서, 또는 입양아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와 같은 두 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 한인 이민자의 2/3을 차지하였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천 명 가량의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누릴 사회적 권위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 눌러앉거나 또는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호가 활짝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이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한인 이민자와 그 후손은 이 시기에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1962년에 한국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로 집단이민과 계약이민을 시작하였다. 1962년의 이민정책의 근본 목적은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내 인구압력을 줄이고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교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집단이민은 1963년 브라질로 103명의 농업 이민자들이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농장을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민을 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농업 경험이 없었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여서 곧바로 대도시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였다. 유럽은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을 중심으로 유학생, 주재원 등을 중심으로 이민사회를 형성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는 북서구 유럽계 이민자들만을 선호하던 이민법이 1960년대 중반에 개정되어 이민 문호가 한인에게도 열리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화이트 칼라직에 종사했던 중산층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오히려 이주를 포기하거나 역이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주는 줄어든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의 이주는 증가해서 해외이주의 지역별 분포에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종래의 가족초청 이주는 줄어드는 반면 사업이주와 취업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7년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공포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업무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외 한인의 역사(<https://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chronology.do>)

자료 5 한인 이주민의 연표

시기	내용
19C 중반	조선농민들, 러시아, 만주로 생계형 이주
1890	서재필 한인 첫 미국 시민권 획득
1903	첫 이민선 하와이 도착 안창호,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미 최초의 한인단체인 한인친목회 조직 하와이에서 신민회 조직
1905	멕시코 계약노동자 첫 이주
1906	간도에 민족학교 서전서숙 설립 대한제국, 이민보호법 공포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 결성
1909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공립협회가 통합 국민회 조직
1910	최초의 사진신부 하와이 도착
1911	블라디보스톡서 민족운동단체 권업회 결성
1913	안창호,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 창립
1916	한인노동자 대거 일본 취업 이주 시작
1918	블라디보스톡서 이동휘 등 한인사회당 결성
1919	동경유학생, 2.8 독립선언 러시아에 대한국민의회 발족 박은식 등 블라디보스톡서 노인동맹단 결성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서 대한독립단 조직
1920	서일 등, 밀산에서 대한 독립군 조직
1921	멕시코 이주노동자 중 300명 쿠바로 재이주 자유시 참변
1923	관동대지진, 재일 조선인 학살
1924	미국, 동양인 이민금지법 통과, 사진신부 이주 종식
1925	재일본 조선노동자총동맹 결성
1931	블라디보스톡에 고려사범대학 설립
1932	블라디보스톡에 조선극장 창립
1934	스탈린 대숙청으로 고려인 2~3천명 행방불명

시기	내용
1937	연해주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938	일본, 한인의 만주 이주 장려
1940	조선인 노동자 활용에 관한 방책 공표(조선인 징용령)
1945	일본출발 귀국선 침몰, 한국인 귀국자 549명 사망
1946	재일 조선거류민단 결성, 한국정부 민단을 유일한 재일동포 단체로 인정 중국서 조선족 종합대학인 연변대학 창립 한국, 재외국민령 공포 일본, 한국인학교 폐쇄 한국, 재외국민등록 실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공포
1947	일본, 외국인 등록법 선포(지문채취 강요)
1950	6.25전쟁 재일한인 자원군 결성 재일본 대한청년단 결성
1951	일본서 KP통신 창간
1952	연변 조선족 자치주 건립 한국, 외국인 등록법 공포
1953	중앙아시아 고려인 거주지 제한 해제
1954	일본 도쿄에 한국학원 설립
1955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첫 캐나다 이민
1956	일본에 조선대학 설립 반공포로 62명, 중남미 이주
1959	재일한인 복송시작 한국 국회, 재일한인을 국회옵저버로 승인(6명)
1962	해외이민법제정, 브라질 농업이민 출발
1963	247명의 광부, 3년 계약으로 독일 광산 취업
1967	조총련 동포 9천 명 한국국적 획득 일본, 영주허가 재일한인에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1968	일본에서 차별철폐를 주장한 김희로 사건 발생 세 이민법 하트-셀러 법 발효, 한인가족 미국, 캐나다로 이민
1969	미국 시카고서 주1회 우리말 방송 시작 한국, 2차세계대전 당시 사할린 징용자에게 국민등록과 여권발급 결정

시기	내용
1971	재미한인 허버트 최, 동양인 최초로 미연방 고등법원판사 임명
1972	재일한인 이회성, 일본문단 최고상인 아쿠다카와상 수상 뉴욕 한국방송주식회사 설립 LA서 한국문화회관 정식 개관 재일한인 2천여 명 7.4남북공동성명지지 모임(조총련과 거류민단 최초의 공동모임)
1973	제주출신 재일동포, 약 1억1천만엔을 제주개발기금으로 기탁 파독 광부, 간호사의 외화 송금액 9월말 현재 7,660만 달러
1974	LA 첫 코리아페스티벌 재일동포 박종석 히다치 상대로 취직 차별철회 소송 승소 베트남 파견 기술자 500여 명 호주 입국, 영주권 획득
1975	조총련 모국방문 추석성묘단 제1진 내한
1976	이종수 박사 동양인 최초 서독 종신교수 임명 중동 최초의 한국학교 이란 테헤란에서 개교
1977	김경득, 최초의 한국국적 소지 일본변호사 등록
1978	독일정부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 전면금지 발표, 15년간의 독일 인력진출 막내림
1980	라성 한국문화원 개원식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어 TV방송 시작
1984	일본 최초의 지문날인 거부자 한종석에 대한 공판 재일 민단 동경본부, 수재의연금 450만엔 전달
1989	세계 한민족체전 개최
1992	로스엔젤레스 4.29사태 발생
1993	일본, 개정 외국인 등록법 시행
1994	민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
1997	한국, 재외동포재단 창립
1999	한국,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정, 시행
2000	해리 김, 하와이시장 취임
2003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식(하와이)
2007	제 1회 세계한인의 날(10.5일)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외 한인의 역사(<https://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chronology.do>)

**자료 6** <한국 근현대사 속 한인 이민자들 이야기> 학생 활동 예시 자료

<b>프로젝트명</b>	1920년대 간도 지역에 살던 한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b>기획의도</b>	1920년 조선이 일제강점기시기에 큰 승리를 얻어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과 홍범도에 활약상을 재구성하고 현재 한일 갈등 속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과거에 일본에게 승리했던 장면을 보여 주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 또한 모든 일에는 계기가 있듯이, ‘암살’에 등장했던 안옥윤에게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항상 차가운 저격수로 살아왔지만 어린 시절 친일파 아버지 때문에 친어머니를 잃고 평생 어머니라 생각해 온 부모까지 ‘간도참변’으로 잃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 어린 안옥윤을 묘사하고 간도참변의 잔인함을 각인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옥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간도참변에 대해 검색해보게 되었고, 독립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간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도에서 떠나게 된 독립군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도 있었다. 일제 당시의 전쟁 승리와 우리가 감상했던 영화 ‘암살’의 주인공에 관한 사실들, 참혹했던 간도참변까지 한 줄로 이어진 이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극을 기획하였다.

**연극 대본**

<p>등장인물: 김좌진, 홍범도, 독립군 장교(김00) 독립군 병사, 내레이션(이00) 일본군 장교(고00) 일본군 병사(남00) 안옥윤(김**) 안옥윤 어머니(이**) 간도의 어느 조선인(윤00: 외부 조 특별 출연)</p> <p>내레이션: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조선에 ‘승리’</p> <p>1920년 봉오동 전투 중                  홍범도: (담담한 어조로) 이번 전투는 우리 조선을 침탈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중요한 전투이다.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해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독립군 병사들: 네.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일본군 장교: 별거 아닌 조센징 놈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일본군 병사: 하잇! 장군                  일본군과 독립군이 모여든다.                  독립군, 산지에 매복한다.                  홍범도: 음..... 여기가 좋겠군.                  일본군 병사: 조센징 놈들 어디에 있는 거지?                  홍범도: 지금이다. 공격!!!                  독립군 병사: 와!!                  일본군. 독립군에게 죽임 당한다.                  홍범도: 일본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조선의 승리이다!                  독립군 병사: 우리가 이겼다!!</p>	<p>김좌진: 가자!! 대한 독립을 위하여                  독립군 병사: 이야!!!!                  일본군, 독립군에게 죽임 당한다.                  일본군 병사: 크흑, 고작 조센징 따위에게 또 지다니... 으악!!!                  김좌진: 이번 전투도 우리의 승리이다!!                  독립군 병사: 대한독립만세!! 우리 민족이 독립할 날도 머지않았어!!</p> <p>(1막 끝)</p> <p>내레이션: 일제에 대한 절망과 분노: 어린 안옥윤의 비참한 경험                  일본군 장교: (화난 목소리로) 조센징 놈들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릴까?                  일본군 병사: 이미 앞에 전투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패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일본군 장교: (낮은 목소리로) 아..... 음..... (벌떡 일어나며) 그래 이거야!!                  일본군 병사: 네??                  일본군 장교: (답답하단 투로) 정면승부로는 안됐으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야.                  일본군 병사: 역시 장교님! 천재십니다!!</p>
---	--

같은 해 청산리 대첩 중  
 김좌진: (담담한 어조로) 이번 전투에서  
 우리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 독립에 더 나아가야 한다.  
 독립군 병사: 맞습니다. 장군!!  
 일본군 장교: 더러운 조선징 놈들을 모두 없애버려 대 일본  
 제국의 영광을 찾아오자!  
 일본군 병사: 조선징을 몰살하자!!!  
 일본군과 독립군이 마주한다.

다시 일본군 막사. 일본군 장교가 들어온다.  
 일본군 장교: 흠 이 조선징 놈들을 어떻게 죽여 볼까?  
 일본군 병사: 우선 만주의 주둔하고 있는 군대 등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립군 토벌 작전  
 도 실패했고 이제 조선인, 교회, 학교 등 조선인들이 있는  
 모든 곳을 다 쓸어버리려면 그만큼 병력은 필수 아니겠습  
 니까?  
 일본군 장교: 그래 좋아. 더 보고할 거는?  
 일본군 병사: 그 만주와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단체가  
 많은데 거기를 공격해서 초토화 시키는 게 어떨까요? 대략  
 조선인 3700명 정도 죽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일본군 장교: 진짜? 그거 대박이구만. 당장 총공격 준비해.  
 일본군 병사: 네.

그 시각 간도 주민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  
 었다.  
 안옥윤: 아 엄마 같이 가.  
 어머니: 줌!  
 안옥윤: 왜!!  
 어머니: 몰라 그냥 지금 좀 불길해.  
 안옥윤: 뭐가 불길한데?  
 어머니: 뭔지 알았으면 좋겠네.  
 간도의 어느 조선인: 흠 맞아. 지금 좀 불길해.  
 안옥윤: 아저씨는 뭔데 불길한 소리야. 꺼져 총으로 쏘버리  
 기 전에.  
 간도의 어느 조선인: 네.....

저 멀리서 일본군이 몰려온다.  
 일본군 병사: 장군님 저기 조선징 놈들이 몰려있습니다. 다  
 죽여 버립시다.  
 일본군 장교: 하하하 복수할 시간이다. 모두 죽어라!! 이놈  
 들!!!!  
 안옥윤: (다급한 목소리로) 뭐야 일본군이야..... 빨리 도  
 망쳐!!!!

내레이션: 그 시각 간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안옥윤과  
 어머니를 비롯한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안옥윤: (밝은 목소리로)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네.  
 어머니: (속으로) 언젠가는 우리 옥윤이에게 비밀을 알려  
 줘야 하는데 말이야.....  
 간도의 어느 조선인: 이 간도는 정말 살기가 좋단 말이야.  
 일본 놈들 안 봐도 되고 말이야.  
 안옥윤: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일본인들이 없  
 어서 좋은 것 같아.  
 어머니: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고 정말 좋은 곳이다.  
 안옥윤: 나는 여기서 평생 엄마랑 있을 거야.  
 어머니: (한숨 내쉬며) 그래 그래라.  
 안옥윤: (소리 지르며) 미쳤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어머니: 빨리 가라고!!  
 어머니, 안옥윤의 뺨을 때린다.  
 안옥윤: 아..... 진짜.....  
 어머니: (느린 목소리로) 다 잘 되겠지. 빨리 가.  
 안옥윤: (울며) 흑흑..... 내가 꼭..... 일본 놈들한테 복  
 수할게.....  
 어머니: 그래.  
 어머니, 숨이 멎는다.  
 안옥윤: (화난 목소리로) 이 놈들 내가 꼭 복수할거야!! 죽  
 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  
 안옥윤 일본군에게서 멀리 도망간다.  
 일본인 병사: 어..... 저기 조선징이 도망갑니다.  
 일본군 장교: 놈. 지가 살아서 뭐 어쩔 거야.  
 간도의 어느 조선인:  
 일본군 병사: 어우 속이 다 후련하네. 조선징 놈들 하하.  
 (2막 끝)  
 간도참변 그 후  
 독립군이 뒤늦게 도착한다.  
 독립군 장교: 하..... 늦었군.  
 독립군 병사: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죠? 어떻  
 게 무고한 백성들을.....  
 독립군 장교: 찢어 죽일 놈들. 일본 놈들 잔인한건 알아줘  
 야 돼.  
 독립군 병사: 이제 어떡하죠? 항일 단체들도 전멸하고 남  
 은 사람들도 몇 안돼요.  
 독립군 장교: 어쩔 수 없지 남은 독립운동가들을 데리고 이  
 곳을 떠나는 수밖에.....  
 독립군 병사: 결국 이렇게 됐군요. 최근에는 좋은 소식들만  
 있었는데 이런 참변이라니.....

<p>어머니: 모두들 도망쳐요!! 간도의 어느 조선인: 뭐야 이런 젠장! 불길함이 맞았어. 빨리 도망가!! 일본인 병사: 모두 죽여라!!! 일본군 눈에 보이는 대로 조선인들을 학살한다. 간도의 어느 조선인: 으악! 일본인 병사: 히히히. 조센징 놈들 복수다. 어머니: (비명을 지르며) 옥윤아 저기로 숨어. 안옥윤: 어어..... 알겠어..... 어머니도 결국 쓰러진다. 안옥윤: (속으로, 숨어서) 많은 조선인들은 구두에 밟혀 죽고, 불에 타 죽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나마 편하게 돌아가셨다. 어머니: 으..... 안옥윤: 엄마!! 빨리 일어나 같이 가야지!! 어머니: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라도 살아야 돼.</p>	<p>독립군 장교: 항일 단체들이 거의 몰살당하고 간도 지역도 이제 죽은 땅이 되었구나. 여길 떠나 다른 곳에서 독립을 도모하자. 독립군 병사: 예..... 장군.  혼자 남은 안옥윤 떠돌게 된다. 안옥윤: (울먹이며) 흑흑..... 어머니!!!!!!!!!! 일본 놈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독립운동에 참여해야하나? 다 죽여 버리겠어..... 그래 우선 군대에 들어가자. 가서 능력을 길러 다 없애버릴 거야. 나쁜 새끼들. 일본 놈들이 기다려라 안옥윤이 간대!!!  내레이션: 일제에 맞선 영광의 승리와 승리에 따른 일제의 보복은 조선인들의 만감을 교차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차가운 저격수인줄 알았던 안옥윤의 슬픈 과거도 엿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승리하고 또 당했던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게 패배하지 말자는 각오를 다진다.  (3막 끝과 동시에 연극이 끝난다.)</p>
--	--

## 마. 참고 자료

### 1 문헌

- 김동우, 『몽우리들의 바다』, 수오서재, 2021
- 김동우, 『몽우리들을 찾아서』, 아카이브 류가현, 2019
- 이연경 외,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 북멘토, 2019
- 이민진, 『파친코』 1,2, 문학사상, 2018

### 2 인터넷 자료

- 재외동포현황([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2](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2))
- 한인 이주민의 정체성(헤로니모 감독 전후석, 정체성의 가치를 말하다 - YouTube)
- 재외 한인의 역사 <https://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viewMain.do>

### 3 기사 자료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613111766531>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247>

## 2 나간 사람들

### 2.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제작하기

#### 가. 수업 요약

수업유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총 차시	10차시	
프로젝트명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제작하기			
탐구 질문	유연하고 다중적인 '이중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 발전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해당 과목 및 단원명	『한국사』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동아시아사』 V- 오늘날의 동아시아 『현대 세계의 변화』 II - 제국주의의 확산과 이데올로기 갈등 『현대 세계의 변화』 IV- 새로운 국제 질서와 인류의 미래			
성취기준	<p>[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p> <p>[10한사03-06]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선 민족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을 탐구한다.</p> <p>[10한사04-08]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p> <p>[12동사05-03]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p> <p>[12현세02-02] 제국주의에 저항한 식민 지역의 저항 운동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세계적으로 만족주의가 확산된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p> <p>[12현세04-04] 환경, 에너지, 바이오(식량, 전염병 등), 인권, 테러 등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 가치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통해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p>			
성공 역량	인천교육 핵심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교과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설계 의도	<p>2020년 12월 기준,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한인이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는 180개국, 총 7,325,143명으로 파악·확인되었다.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이중 정체성'이라는 화두가 세계 질서 속에서 개인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으로 보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고뇌이자 성장통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경계인에 머무르며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느끼기도 한다. 거주국에서 출생한 2세대 이후의 재외 한인(한민족 디아스포라) 후손의 경우 직접 체득한 거주국 내에서의 환경 경험이 성장과 사회화 과정의 주요인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복합 문화적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p>			

<p><b>설계 의도</b></p>	<p>이에 전 세계 각 지역의 재외 한인(한민족 디아스포라<sup>4</sup>) 구성원들이, 현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터를 둔 한민족과 서로를 가깝게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COVID-19 이후 더욱 발전되고 일상화된 화상 회의 기술 및 VR/AR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동시적 체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대두된다.</p> <p>본 프로젝트 수업은 한반도에 터를 둔 학생들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 터를 둔 재외 한인(한민족 디아스포라) 후손들과 서로의 정체성 고민을 함께 나누며 “넓은 의미의 한민족”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인권”과 “세계 시민”의 측면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공감”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p>
<p><b>정리 및 주요 산출물</b></p>	<p>국외 소재 유적·문화재 안내문, 마인드 맵 자료, 가상 일기 작성물,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구성 자료 (보고서 또는 게더타운 산출물) 등</p>

4) 디아스포라(Diaspora) -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을 이르던 말(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나. 수업 개요

단계	차시	수업 예상 흐름	도움글	교수학습자료
도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이란?</li> <li>- 유연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이주지역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인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의 필요성 자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 활동(3~4명 모둠 구성)</li> </ul>	<자료1> 이민의 개념 <자료2> 2021재외동포 현황
		<재외 한인 후손의 정체성 고민 공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 재미 교포 2세 아이들의 생각(4분 30초~6분 22초) (6분 56초~7분 52초~9분 30초)</li> </ul>  (링크) <a href="https://youtu.be/XSMVhr09m50">https://youtu.be/XSMVhr09m5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해외 동포의 삶과 정체성을 영화로 풀어내다...스위스 한인 2세 신해섭 감독(1분 50초~3분5초)</li> </ul>  (링크) <a href="https://youtu.be/SLJKtldSjKl">https://youtu.be/SLJKtldSjKl</a>		
		<민족 정체성 고취 방안으로서 유대인 박물관 소개>  (링크) <a href="https://youtu.be/9yliRMdQgTQ">https://youtu.be/9yliRMdQgTQ</a> <인천 이민사 박물관 영상 시청>  (링크) <a href="https://youtu.be/GaX-oTLD_8">https://youtu.be/GaX-oTLD_8</a> <한국 이민사 출발지, '인천' 120년 역사 한눈에>  (링크) <a href="https://youtu.be/ds8OnzCaroM">https://youtu.be/ds8OnzCaroM</a> <기타-한국 이민의 역사>  (링크) <a href="https://youtu.be/YAdMxje1B6w">https://youtu.be/YAdMxje1B6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시청 및 프로젝트 설정 단계 진행</li> <li>■ 인천 이민사 박물관 영상 시청, 마인드맵 자료 제공</li> </ul>	<자료3>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세계 유대인 역사 및 문화 박물관 (jewish museum)) <자료4>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 요인, 이민자 특성, 문화변용 수준, 거주국의 민족정책

<p>도입</p>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전세계 곳곳에 한국의 민족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기억해주세요!</li> </ul>  <p>(링크) <a href="https://youtu.be/Lcw3v-iWns0">https://youtu.be/Lcw3v-iWns0</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이민 세대의 정체성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지역에 남아있는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상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을 제작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시청</li> </ul>	<p>〈자료5-1, 5-2〉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기억해주세요! (활동자료1로 투입) 〈자료6〉 인천이민사박물관 구성마인드맵</p>
<p>전개</p>	<p>주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이민자들,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표현·성장하게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이민사 박물관을 기획해보자.</li> <li>-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의 구성을 위한 마인드맵 기획안을 작성하자.</li> </ul> </li> </ul>		<p>〈활동자료2〉 마인드맵 기획안</p>
	<p>자료 수집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서(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지역을 선정하고,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마인드 맵을 평면에 구상하기</li> <li>- 자료 조사(장소, 인물, 민족성 반영 물품 등) 및 공간 배치도 작성</li> </ul> </li> </ul>		<p>〈활동자료3〉 프로젝트 계획서(안)</p>
	<p>결과물 개발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오브젝트 배치 및 구성</li> <li>- 조사된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자료를 연동시키기</li> <li>- 가상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메타버스 제작플랫폼 체험 및 기초 제작기능안내 (정보교과와 협력 수업 진행 가능)</li> </ul>	<p>〈자료7-1, 7-2〉 예시-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문 작성 안내 및 작성 사례 〈자료8〉 게더타운 제작 기초 기능 안내</p>
<p>프로젝트 결과 발표</p>	<p>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및 소감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카페 진행(제작 모둠의 1인이 남아 설명 진행, 타모둠이 순서대로 이동하며 제작 지역의 가상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경험</li> <li>- 제작자의 입장에서, 모둠별로 소감문 작성 및 발표</li> <li>- 가상 후손의 입장에서, 가상 세계 속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콘텐츠를 체험한 가상의 일기 작성하기</li> <li>- 역사적 사실, 기획 의도, 가상 일기 속에 드러난 역사 콘텐츠의 영향을 검토</li> </ul> </li> </ul>		<p>〈활동자료4〉 소감문 작성 제작자 입장 가상 후손의 입장</p>
<p>성찰</p>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의견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속 이민자들의 정체성 고민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서 ① 선조들의 조국인 한국 방문과 ②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활동한 선조들의 흔적을 발굴하여 추체험하는 것 ①, ②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일까?</li> </ul> </li> </ul>		<p>〈활동자료5〉 자신의 의견 정립하기</p>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활동자료 1** 영상을 보고 아래 3개의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독립 운동 유적지 명칭	조사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임청각</p>  <p>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2017.11.06.기사 (임청각 복원 시점은 '일제의 철도개설 이전'으로)</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이태준 공원&amp;기념관</p>  <p>이미지 출처: (사) 대암 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hr/> <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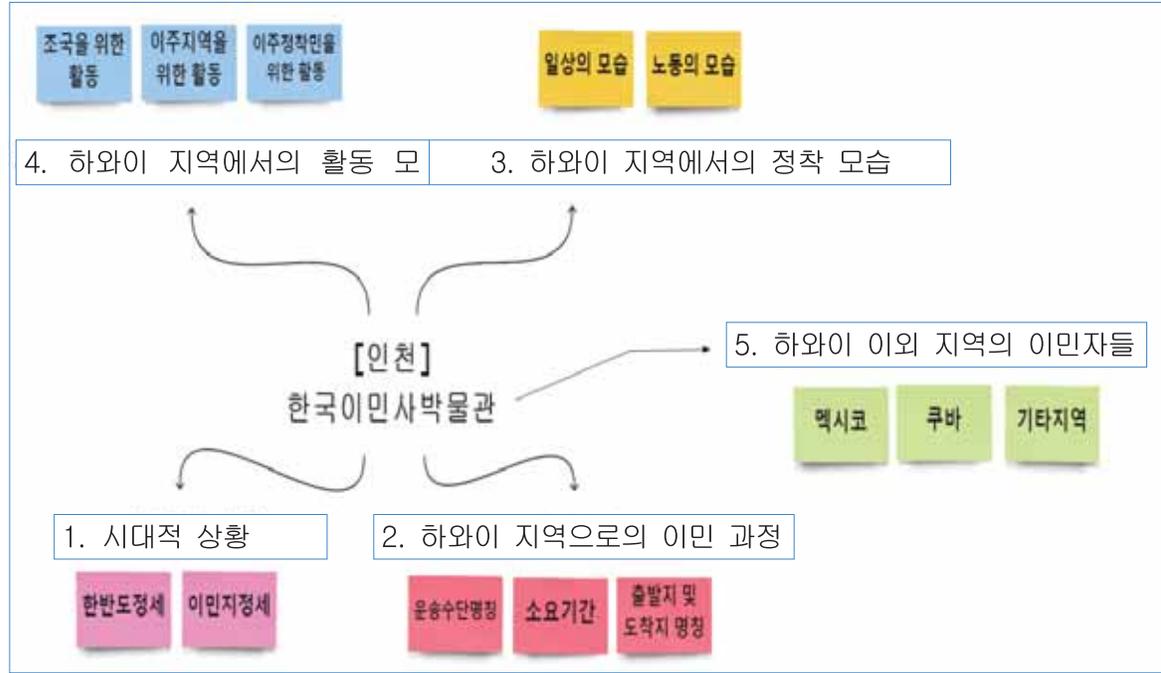
대한민국민회 기념관	
 <p>이미지 출처: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 영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조사해보세요.

독립 운동 유적지 명칭	조사 내용
<p>명칭?</p> <p>(이미지 넣기)</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활동자료 2 마인드맵 기획안

예시 -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2008년 건립) 마인드맵



활동자료 3 프로젝트 계획서(안)

- ① 조사 대상 지역 또는 국가를 선정하고,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마인드 맵을 평면에 구상하기
- ② 자료 조사(장소, 인물, 민족성 반영 물품 등) 및 공간 배치도 작성

**활동자료 4** 소감문 작성(제작자 입장, 가상 후손의 입장)

①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 제작자의 관점에서 회고록을 작성해 봅시다.

---

---

---

---

---

---

---

---

②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에 방문한 가상 후손의 관점에서 일기(소감문)을 작성해 봅시다.

---

---

---

---

---

---

---

---



## 라. 교사 참고 자료

### 자료 1 이민(移民)의 개념

#### [정의] 외국에서 영구적이거나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

이민?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인 국제이주  
 국제연합(UN)은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 '이민'을 정의  
 이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단기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모든 형태의 이동

#### 1. 이민의 유형

이민은 **이동의 방향, 동기, 시간, 규모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방향과 관련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 이입(移入, immigration), 국외로 나가는 이민을 이출(移出, emigration)이라고 부른다. 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이민은 기원국과 거주국 간의 취업, 교육, 생활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해외 유학생, 은퇴이민자 등이 자발적 이민에 해당한다. 반면 비자발적 이민은 자연재해, 전쟁, 탄압, 납치 등의 이유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난민, 유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비자발적 이민에 해당한다. 리치몬드(Richmond, 1988)는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응적(reactive) 이민과 적극적(proactive) 이민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순응적 이민자에는 난민, 무국적자, 노예, 강제노역자 등이 있고, 적극적 이민자에는 은퇴이주자, 통행자, 귀환자, 가족 재결합자, 일상적 여행자 등이 있다.

**시간에 따라서 이민은 일시적 이민과 영구적 이민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이민은 단기간에 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에선 단기 계약 근로자, 계절 노동자, 순환 이주 노동자, 해외 유학생 등이 있다. 반면 영구적 이민은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 이에선 결혼 이민자, 투자 이민자, 가족 결합 이민자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결국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규모에 따라서 이민은 개인이민과 대량·집단이민으로 구분된다.** 개인이민은 취업, 유학, 가족결합 등의 이유로 개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동이고, 대량·집단이민은 자연재해, 전쟁, 탄압 등의 이유로 민족 또는 국민의 일부가 집단 수준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대량·집단이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면서 발생한 인구이동이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720만 명의 이슬람교도가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거의 동수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한민족의 경우에도 대량·집단이민의 아픈 경험이 있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인이 일본의 첩자역할을 할 것이라는 군사적 우려와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을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 개간한다는 경제적 목적 하에 17만 1781명의 한인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강제 이주시켰다. 현재 52만 명에 달하는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대부분은 1937년 강제 이주된 이민 1, 2세의 후손이다.**

#### 2. 이민의 영향

이민은 인구이동을 통해 한 개인과 그의 가족, 지역사회, 기원국과 거주국, 세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민연구에서는 이민의 규모와 특성, 동향뿐만 아니라 이민이 개인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이민에 대한 기존 연구의 상당 부분은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권,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다문화 등의 관점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개발의 측면에서 이민은 이주 노동, 송금, 두뇌 유출 또는 두뇌 순환의 방식으로 기원국과 거주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이주 노동자는 거주국에서 내국인이 꺼려하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모국에는 송금을 통해 가족과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 유학생 및 고숙련 이주 노동자의 이주는 과거에는 두뇌 유출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귀환 또는 순환 이주가 빈번해지면서 모국과 수용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이민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다. 국가 간 노동 이주의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뤄지고,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동반 이주자'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 이주자가 많아졌다. 여성의 이주 노동은 가족 구조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해외에서 일하는 '초국가적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부부간의 성역할과 권력관계가 변하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해외 이주로 본국에 남겨진 아동은 양육, 교육, 복지 등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한다. 특히 부모는 모의 부재가 장기화될 때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고 부모의 훈육을 받지 못한 자녀는 일탈 또는 비행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 해외에서 부모가 보내는 송금으로 자녀는 학교 교육을 받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초국가적 양육이 자녀의 교육과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라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민은 해외에 재외동포로 구성된 디아스포라(diaspora) 공동체를 형성한다. 디아스포라는 우리말로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과거에는 디아스포라가 모국에서의 부정적인 요인들(빈곤, 압제, 강제 추방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재외동포가 모국의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되어 모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수백만 명의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에서는 '국가적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이들이 송금을 보내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 이제는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외동포는 단지 모국에 송금을 보내는 경제적 기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근대화시키고, 선진국의 기술, 지식, 정보를 전달하며, 외국 원조와 투자를 모국으로 유치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최근 이민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개념보다 초국가주의 개념을 사용해서 모국과 거주국 간에 형성된 쌍방향적이고 다층적인 사회·문화 연결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 주목하는 이론적 시각이다. 초국가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을 통해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연결망을 통해 기원국과 거주국에 모두 연결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초국가적 연결망을 통해 중국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조선족은 1980년 이전까지는 동북 3성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교육 수준과 소득에서 한족을 앞서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으로 연해지역과 내륙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변방에 위치한 조선족의 경제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족은 1980년 이후부터 연해와 내륙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중국-한국-일본-미국 등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핵가족이 분산되기도 하지만 시부모/친정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면서 초국가적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축적한 자본과 직업 기술을 갖고 귀국한 조선족은 중국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하면서 조선족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민은 서로 떨어져 살던 인종·민족집단들이 접촉하고, 새로운 인종·민족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서로 분리되었던 두 인종·민족집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하느냐에 따라 인종·민족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정복과 같은 방식으로 이주집단이 토착집단을 종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착집단이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종·민족관계가 갈등적이고 억압적이다. 15세기 후반에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피지배 민족의 위치로 전락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인디언들은 고향에서 추방되고 ‘인디언보호지역’에 갇혀 빈민층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민을 통해서 이주집단이 거주국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수적으로나 권력에서 열세인 이주집단이 생존의 목적으로 토착집단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인종·민족관계는 덜 갈등적이고 억압적이다. 더욱이 이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갈등이 미미하고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동화하고 기존 체제에서 신분상승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시아인들이 교육과 소득에서 백인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해서 ‘모범적 소수민족’(model minority)로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아시아인 중에도 민족집단별로, 사회계층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성공한 중상층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유리장벽’과 같은 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다른 소수인종들(흑인과 히스패닉)과 비교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백인 중심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동화주의적 적응 양식을 보이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민은 그 규모와 다양성에서 더욱 확대됐고, 이로 인해 거주국의 인종·민족 구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내국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기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건설업, 제조업,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의료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자와 전문인력을 받아들였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의 이전 식민지(알제리, 모로코 등)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독일은 터키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으며 한국으로부터는 광산노동자와 간호사들을 계약 노동자 형태로 받아들였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196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로부터 중상층 출신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구 선진국의 인구 구성에서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더 이상 동화주의로는 자국 내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는 1971년에 서구 국가로는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했다. 원래 의도는 퀘벡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 운동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후 소수 인종 집단의 문화 보호와 평등한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는 미국,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들에서 소수민족과 원주민, 소수 인종 문화 집단들의 문화적 생존과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점점증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정치 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문화주의가 채택되었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확산되었다.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하면서 일본, 대만,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내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어렵게 되자 외국인 신부를 초청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사업가, 유학생들도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비교해 외국인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각국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귀화 외국인의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은 ‘다문화 공생’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아직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외국인의 상당수가 단기 체류자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민족갈등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정주자가 되면서 자신들의 평등한 사회권과 문화권을 요구하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게 될 때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민족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다문화의 경험을 갖지 못했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수집단의 사회문화에 동화하기를 거부하는 소수민족을 얼마나 관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 면에서 동질성과 민족주의가 강한 동북아시아에서 다문화주의는 정착하기까지 매우 힘든 여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 3. 전근대의 이주와 이민

#### 1) 세계 속 전근대~현대의 이주와 이민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먼 조상인 직립원인(호모 에렉투스)은 지금부터 백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이주했다.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고 4만 년 전에는 호주, 아시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아메리카 대륙으로는 2만~1만 5천 년 전에 아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대 이주는 1500~1800년 기간에 융성했던 중상주의 시대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다수의 농민, 소수의 관료와 장인, 극소수의 기업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죄수들로 구성됐다. 신대륙에서의 농장경제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처음에 동아시아에서 계약노동자들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들 노동력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1500~1800년 기간에 천만 명 가량의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들여왔고 이들로 인해 신대륙의 인종·민족 구성은 급격하게 변모했다.

19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은 국제이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노동자, 농민 계층들은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주했다. 1800년부터 1925년 기간에 4천 8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을 떠나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이주했다.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종료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으로부터의 국제이주를 중단시켰고,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은 국제이주를 더욱 제한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국제이주가 중단되었으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난민, 실항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주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현대적 이주는 소수의 유럽 국가들에 제한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이 주요 송출국이었으나 이때부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대다수의 이민자들을 송출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는 전통적인 이민 송출국이었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고유가로 고속의 경제성장을 시작한 중동 산유국들이 건설 및 가사노동자들을 대량 유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이주가 확대되어 일본 외에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충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민 수용국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중동으로 향했던 노동 이주가 아시아로 방향을 바꾼다. 그 주된 이유는 1991년에 발발한 걸프 전쟁,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의 종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이었다. 그 결과 1997년에 해외로 송출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7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주했고 나머지 25%가 중동으로 향했다. 1996년에 타이는 18만 5436명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했는데 이들 중 87%가 아시아로, 12%는 중동으로 향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낮은 인구 성장률과 높은 경제 성장률로 내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기보다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수입국으로 변모했다.

## 2) 한국 속 전근대~현대의 이주와 이민

한민족 이주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한일합방이 일어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유민(流民)으로서 당시 입국이 금지되었던 지역에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갔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한인 이주는 1902~19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와이 거주 일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1905년에 한인 이주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이주는 불가능해졌다. 1905년까지 7,226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다.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결혼의 형태로 1,000여 명 가량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서 이민 가정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치적 난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설을 계기로 만주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한인들의 대규모 집단이주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대 후반 만주지역의 한인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중 약 25만 명 정도가 집단이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경제호황을 맞아 한인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도입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한인들이 광산,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재일한인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한 1945년 8월까지 약 23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가 패전 후 많은 한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자 급속히 감소하여 1947년에는 59만 8507명으로 급감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한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한 해)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명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동일시기에 5,000명가량의 아동들이 전쟁고아, 혼혈아 또는 입양아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위와 같은 두 부류의 이민자들이 전후 한인 이민자의 2/3을 차지하였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000명가량의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누릴 사회적 권위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 눌러 앉거나 또는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호가 활짝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이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962년 한국 정부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착을 목적으로 이민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면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이민이다.** 1962년에 한국 정부는 남미, 서유럽, 중동, 북미 국가들과 계약을 맺고 집단이민을 시작했다. 이 당시 이민정책의 주요 목표는 잉여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냄으로써 인구압력을 줄이고 해외에서 일하고 사는 동포들이 송금하는 외화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인의 해외이주는 1965년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미국은 그 이전까지는 유럽계 이민자들을 선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민자들은 배척하였으나, 냉전시기에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이민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경제성장을 위해 비유럽계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따라서 캐나다, 호주 등도 이민법을 개정하여 비유럽계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 이외에도 고실업과 저소득 때문에 밖으로 인구를 배출하려는 힘이 강했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팽창하는 의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에서 외국의 고학력·전문직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한인이민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70~80년대에는 연 3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모국에서 재외동포의 전문직·기술직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이민이 줄고 오히려 역이민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해외이주는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흐르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직장을 잃거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자 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2만 3314명이 해외이주를 떠났지만 1995년에는 1만 5917명으로 줄고, 1997년에는 1만 2484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해외이주자가 1만 3974명으로 증가했고, 1999년에는 1만 2655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00년에는 1만 530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으로의 이민기회가 제한되거나 이민수속이 장기화되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목적지가 변경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거나 단기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후 장기 체류하는 등의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해외이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현상이며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규모와 특성이 변해갈 것이다.

#### 4. 한국 민족과 이민의 문제

##### 1) 재외동포의 현황과 문제

재외동포는 모국과 거주국의 상이한 요인들에 의해 이민을 가게 되었고, 거주국별로 상이한 이민 및 민족정책에 따라 적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주요 재외동포 집단의 적응 양식과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족**은 과거에는 주로 벼농사에 종사하였으나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상업을 포함한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민족에 비교해서 높아졌다. 소득과 교육에서는 여전히 타민족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타민족에 대한 비교우위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거주지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동북3성의 농촌지역에서 집성촌을 형성하여 살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도시와 연해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종교면에서는 과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종교활동이 미미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한국 또는 재미한인 개신교회들의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개신교들이 늘어가고 있다. 민족문화와 정체성 유지와 관련하여 조선족의 민족어 사용수준은 여타 재외한인보다 높다. 족내혼, 민족문화와 관습의 유지 및 실행 수준이 높고, 높은 민족동일성과 애착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선족은 과거에는 고립형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 주류사회의 기회구조에 참여하면서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려인**은 조선족과 같이 과거에는 주로 농촌 집단농장에서 벼농사에 종사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적인 직업, 즉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자영농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소득과 교육에서는 여전히 민족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젊은 세대가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타민족에 대한 비교우위가 떨어지고 있다. 종교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구소련 체제에서는 종교활동이 미미하였지만 1990년대 초부터는 한국 및 재미한인 개신교회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개신교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이민 3,4세가 주류를 이루는 세대구성으로 인해 러시아 사회문화로의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민족어 사용능력이 매우 낮고, 타민족과의 족외혼 비율이 높다. 하지만 언어, 문화적 동화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은 높은 민족동일시와 애착심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인은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용형이 증가하고 현재는 동화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재일한인**은 과거에는 육체노동, 단순직에 종사하여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 참여자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교육수준이 낮았으나 현재는 일본인 평균수준과 동일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거주지면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대도시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한인 밀집주거지역에서 분산되고 있다. 종교는 토속신앙, 불교, 기독교가 혼재된 상태이고, 개신교회 선교활동이 전체적으로 미미하나 뉴커머를 중심으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일한인의 일본 사회문화로의 동화수준은 타지역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높다. 이는 이민 2, 3세가 재일한인의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일본사회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일한인의 민족어 사용능력은 낮고 일본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정체성은 타지역 재외한인에 비교해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이는 세대뿐만 아니라 국적 및 이념에 따라 정체성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재일한인은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수용형이 증가하고, 현재는 동화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이다.

**재미한인**은 이민 초기에는 농장, 단순직에 종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의 신 이민자들은 주로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과 교육면에서는 미국의 타민족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중류층의 계층지위를 점유한다. 주거면에서 1970~1980년대에는 도심의 코리아타운에 한인들이 집중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교외화가 두드러졌다. 교외로 이주하는 한인들을 따라 교외에 코리아타운들이 작은 규모로 형성되었다. 종교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개신교회는 한인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한인의 60~70%가 교회에 출석할 정도로 종교활동이 활발하다. 재미한인은 아직 이민 1세가 주류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문화로의 언어, 문화적 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 2~3세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매우 낮고 이들의 타민족과의 족외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한민족으로서 강한 민족동일시와 애착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고립형이 우세하였으나 현재는 수용형이 지배적이고, 이민 2세 이후에는 동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캐나다 한인**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현지에서의 정착이 최대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높은 교육수준과 중산층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에서는 출신배경에 상응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타민족에 비교해서 대체로 높으나 중류층 또는 중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미한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교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코리아타운도 근교에 형성되고 있다. 이민교회는 한인의 중요한 신앙공동체이면서 사회문화적 조직이고 대다수의 한인들이 한인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직 이민 2,3세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캐나다 사회문화로의 동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민 2,3세의 한국어 사용능력은 낮은 수준이고 타민족과 혼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으로의 정체성과 애착은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고립형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수용형이 지배적이고 2세 이후에는 동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외한인이 거주국에서 보이는 사회문화 적응유형은 시기와 거주국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정착초기에는 고립형이 우세하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용형과 동화형이 증가한다. 둘째, 동일 재외한인 집단 내에 여러 적응유형이 공존하고 민족정체성도 다중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적응유형은 이주세대, 계층,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이민 2,3세 이상, 중상층, 도시거주민들 중에서 수용형과 동화형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셋째, 주변화형에 속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재외한인이 거주국이든 모국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소속감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주자의 신분으로 거주국 사회에 편입되고 거주국에서 인구와 권력면에서 소수집단인 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화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색소수민족으로 다수 지배집단에 의해서 구별되고 차별받는 상황에서 한인은 거주국 사회로의 완전한 동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은 <거주국 사회의 제한된 기회구조 내에서 신분상승을 추구하면서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용의 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이민세대가 1, 2세에서 3, 4세로 넘어가면서 한인의 가치정향성은 모국에서 거주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민 3, 4세에게 민족문화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이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족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주국의 타민족·인종과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민 3, 4세는 민족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민족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인의 사회문화 적응유형은 수용형에서 동화형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재외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이 압축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물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에 연결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초국가주의**이다. 여타 국제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외한인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문화접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유연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조선족의 이주와 경제생활, 그리고 가족생활이 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자칫 거주국의 주류사회문화에 동화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재외한인 차세대에게 모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재외한인 차세대 중에서 한민족 정체성이 부흥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자신의 경력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민(移民)부분 발췌 및 재정리)]

**자료 2** 2021 재외동포현황

- 외교부는 2020.12월 기준 국가별 재외동포현황을 조사·집계한 「2021 재외동포현황」을 12.24.(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조사 결과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년 전인 2018.12월 기준 동포 규모(7,493,587명)와 비교할 때 2.2%(168,444명) 감소한 수치이다.
  -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3,622명으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재외 국민 수가 직전 통계 대비6.53%(175,59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학생 수가 293,157명에서 171,343명으로 41.55%(121,814명) 감소

※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18,045	1,322,133	171,343	2,511,521	4,813,622
증감(명)	-13,737	-40,042	-121,814	-175,593	7,149
증감률(명)	-1.33	-2.94	-41.55	-6.53	0.15

-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의 재외동포가 2.96% 증가한 가운데,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동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북미의 경우 캐나다 내 동포 수는 소폭(1.80%) 감소하였으나, 미국 내 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3.41%(86,795명) 증가

※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중동
총계(명)	3,169,287	489,420	2,871,141	90,289	677,156	27,850
(백분율(%))	(43.27)	(6.68)	(39.20)	(1.23)	(9.24)	(0.38)
증감(명)	-117,076	-103,021	82,409	-13,328	-9,903	-7,525
증감률(%)	-3.56	-17.39	2.96	-12.86	-1.44	-21.27

- 한편, 우리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33,777명), 중국(2,350,422명), 일본(818,865명), 캐나다(237,364명), 우즈베키스탄(175,865명), 러시아(168,526명), 호주(158,103명), 베트남(156,330명), 카자흐스탄(109,495명)으로 파악되었다.
  - 지난 조사에서 10위였던 필리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외동포가 61.20% 급감(85,125명→33,032명)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14위를 기록.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2021.12.24.(금)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

자료 3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세계 유대인 역사 및 문화 박물관)



	위치(도시/국가)		성취 기준
1	뉴욕		유대인 박물관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유대인 박물관이다. 미국 최대의 유대인 박물관으로, 유대교의 역사, 문화 등 약 26,0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 이 건물은 유대인 금융가 펠릭스 M. 와버그의 저택이었던 펠릭스 M. 와버그 하우스로 사용되던 곳이다.
2	베를린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은 1946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유대인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설계한 것이다. 그는 도시 디자인과 건축 설계 작업에 신비평과 학제 간 연구의 관점을 적용한 이론적 접근으로 유명하다.
3	런던		유대인 박물관 런던(Jewish Museum London)은 영국 유대인의 삶, 역사 및 정체성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런던 북부 캠든의 런던 자치구에 있는 캠든 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 역사, 문화 및 유산을 탐구할 수 있는 곳이다.
4	샌프란시스코		현대 유대인 박물관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남쪽에 있는 예르바 부에나 레인 (Yerba Buena Lane)의 736 미션 스트리트에 있으며 비수집 박물관이다.
5	빈		Jüdisches Museum der Stadt Wien GmbH 또는 유대인 박물관 비엔나이다. Jüdisches Museum Wien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역사, 생활 및 종교 박물관이다.

	위치(도시/국가)		성취 기준
6	시드니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역사 박물관으로 호주 유대인의 역사인 홀로 코스트를 문서화하고 호주의 인권 문제를 탐구한다.
7	맨체스터		맨체스터 유대인 박물관(Manchester Jewish Museum)은 영국 맨체스터의 치담 힐 로드(Cheetham Hill Road)에 있다. 예전 스페인 및 포르투갈 회당을 사용하고 있다. 1984년 3월에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 지난 200년 동안 맨체스터의 유대인 정착과 그 지역 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8	멜버른		호주 유대인 박물관은 "호주에서의 유대인 경험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호주 유대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대인들이 호주로 이주한 이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삶, 오늘날의 호주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현재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교외의 St Kilda에 위치하고 있다.
9	뉴욕		뉴욕시 맨해튼 배터리 파크 시티에 위치한 유대인 유산 박물관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리는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이 200만 명이 넘었다.
10	프라하		프라하의 유대인 박물관은 체코의 유대인 유산 박물관이며 프라하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 중 하나이다. 유대교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컬렉션 중 하나이며 약 40,000개의 물건, 100,000권의 책, 그리고 체코 유대인 공동체 역사의 방대한 아카이브이다.
11	암스테르담		유대인 문화 지구(Jewish Cultural Quarter)의 일부인 조즈 박물관(Joods Museum)은 네덜란드와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역사, 문화 및 종교에 전념하는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이다.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유대인 역사에 전념하는 박물관이다.
12	벨기에		벨기에 유대박물관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박물관이다.
13	워싱턴		캐피탈 유대인 박물관, 공식적으로 Lillian & Albert Small Capital Jewish Museum은 워싱턴 D.C.의 역사 사회이자 계획된 박물관으로 미국 수도와 주변 워싱턴 수도권의 유대인 삶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치(도시/국가)		성취 기준
14	볼티모어		메릴랜드 유대인 박물관은 미국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 있다. 박물관은 볼티모어시와 미국 메릴랜드 주 전역에 걸친 미국 유대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15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이다. 1977년 Nicholas Stavroulakis 가 그리스 유대인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16	덴마크		덴마크 유대인 박물관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유대인 박물관이다. 덴마크 왕립도서관 정원 안에 있는 올그 겔리 하우스를 리모델링하여 2004년 개장하였다.
17	필라델피아		와이즈만 국립 미국 유대인 역사 박물관은 센터 시티 필라델피아의 마켓 스트리트에 있는 101 사우스 인디펜던스 몰 이스트에 있는 스미소니언 관련 박물관이다. 1976년에 설립되었다.

출처 : google 검색 - 검색어 jewish museum location

자료 4 재외한인의 이민 배경 요인, 이민자 특성, 문화변용 수준, 거주국의 민족정책



	독립국가연합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민시기					
1단계	1863-1904	1863-1910	1910 이전	1903-1905	1967 이전
2단계	1905-1937	1910-1930	1910-1937	1906-1945	1967 이후
3단계	1937-1945	1930-1945	1937-1945	1945-1964	
4단계	1945-1991	1945-1992	1945-1989	1965년 이후	
5단계	1991년 이후	1992년 이후	1989년 이후		
세대구성	3, 4세가 주류	3, 4세가 주류	2, 3세가 주류	1세가 주류	1세가 주류
출신지역	현재의 북한지역 (함경도, 평안도)	1930년 이전: 현재의 북한지역(함경도, 평안도) / 1930년 이후: 한반도 내 지역으로 다양화	현재의 남한지역(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부분 남한 출신과 소수의 북한 실향민	대부분 남한 출신
이주동기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 / 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경제유민) / 정치적 동기(독립운동)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노동이민) / 1937-1945년에는 강제징집	주로 경제적 이유(초기의 노동이민과 후기의 중산층 이민) / 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도 작용	주로 경제적 이유 / 사회문화적 이유(자녀교육과 사회복지)도 작용
계층배경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가난한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기근과 압제에 떠밀린 농민 유민(流民)의 성격이 강했음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 체류자(sojourner)와 강제이주자의 성격이 강했음	초기: 농민, 노동자 중기: 국제결혼 여성, 전쟁 고아, 유학생 후기: 고학력, 중산층 초기에는 체류자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정착이민의 성격이 강함
거주국의 민족정책	동화주의	다원주의 (민족자치 허용)	동화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문화변용 수준	러시아문화로의 동화	민족문화 유지	일본문화로의 동화	미국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 유지	캐나다문화로의 동화와 민족문화 유지
호칭	고려사람	조선족	재일(在日)한인	코리안-아메리칸	캐나다 한인

출처 :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윤인진, 2004)

**자료 5-1**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기억해주세요!

▶ 영상을 보고 아래 3개의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독립 운동 유적지 명칭	조사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임청각</p>  <p>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2017.11.06.기사 (임청각 복원 시점은 '일제의 철도개설 이전'으로)</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이태준 공원&amp;기념관</p>  <p>이미지 출처: (사) 대암 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p>	<p>1. 유적지의 위치?</p> <hr/> <hr/> <p>2. 관련된 인물?</p> <hr/> <hr/> <hr/> <p>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p> <hr/> <hr/> <hr/> <hr/> <p>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p> <hr/> <hr/> <hr/> <hr/>

대한민국민회 기념관	1. 유적지의 위치? _____ _____
 <p>이미지 출처: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p>	2. 관련된 인물? _____ _____
	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 _____ _____ _____
	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_____ _____ _____

▶ 영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조사해보세요.

독립 운동 유적지 명칭	조사 내용
명칭?  (이미지 넣기)	1. 유적지의 위치? _____ _____
	2. 관련된 인물? _____ _____
	3. 관련된 인물의 발자취(활약, 업적)? _____ _____ _____
	4.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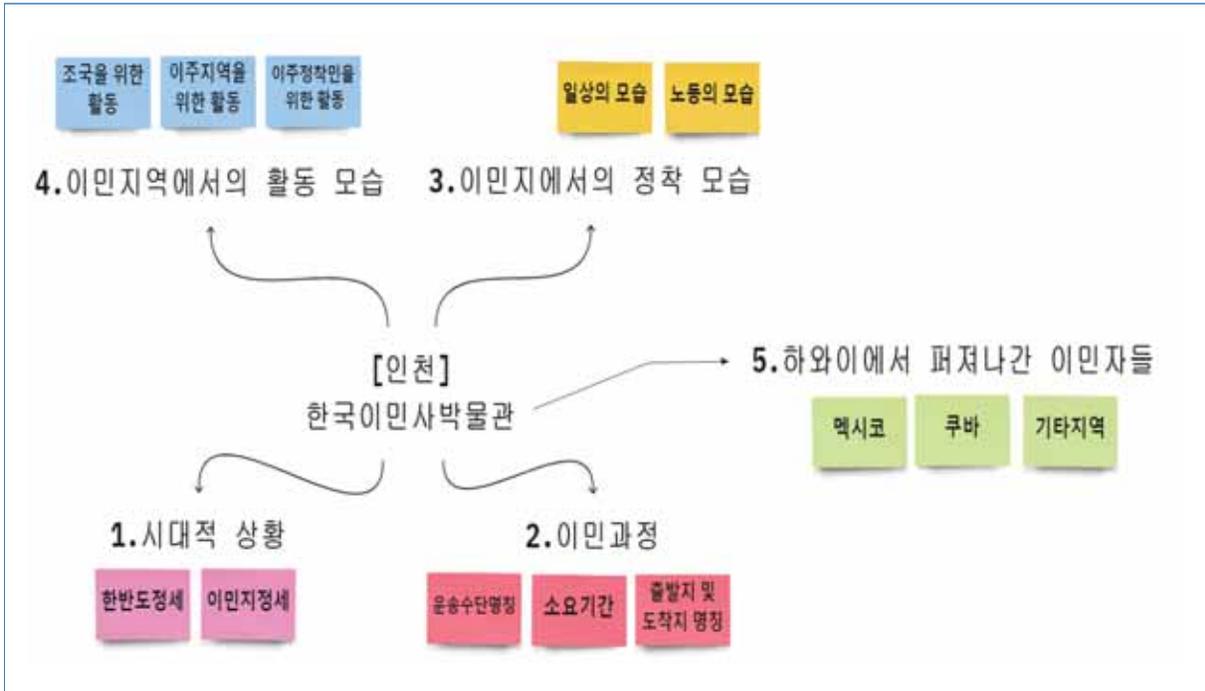








자료 6 예시 -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2008년 건립) 마인드맵



자료 7-1 예시 -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문 작성

국외에 있는 다양한 독립 운동 유적지 중 1곳을 선택하여 해당 유적지에 대한 “문화 유적 안내문”을 아래 필수 작성 요소를 반영하여 작성하기

필수 작성 요소

- 본인이 선정한 국외 독립 운동 유적의 명칭 및 장소
- 해당 독립 운동 유적지의 선정 이유(역사적 의미를 내포하여 500자 내외 서술)
- 본인이 선정한 해외에 존재하는 독립 운동 유적지 사진
- 선정한 독립 운동 유적지에 대한 문화 유적 안내문 작성하기(500자 내외 서술)

유의점) 사실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독립 운동 유적지의 명칭, 위치한 국가 명, 관련 활동 등 표기)

**참고 자료** 문화 유적 안내문 예시(국내 봉화 청량산)



**봉화 청량산(奉化 淸涼山)**

청량산은 해발 800m 내외의 바위로 된 봉우리 열두 개와 생김새가 이상하고 묘한 바위와 돌이 어우러져 장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역암, 사암, 이암층이 용기, 풍화, 차별침식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경치가 아름답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고려 말 공민왕이 난리를 피하여 머물렀다는 궁궐터와 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 등과 관련된 유적이 있다. 또한 퇴계 이황이 이곳의 경치를 사랑했다 하여 유교와 퇴계를 숭상하는 선비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종환이 “택리지”에서 백두대간의 여덟 개 명산 외에 대간을 벗어난 4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만큼 한국의 대표 명산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이다.

사진 출처 : 문화유산채널(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산, 봉화 청량산 영상 캡처)  
문화 유적 안내문 글귀 출처 : 문화재청 누리집(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3. 선정한 국외 소재 독립 운동 유적지 사진을 포함하여 독립 운동 유적지에 대한 문화 유적 안내문 작성하기

(국외 소재 독립 운동 유적지 사진 자료 부착하기)

출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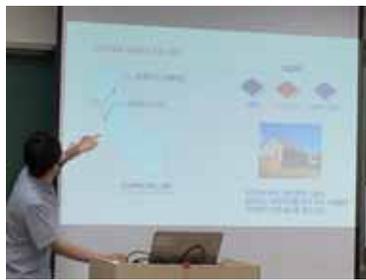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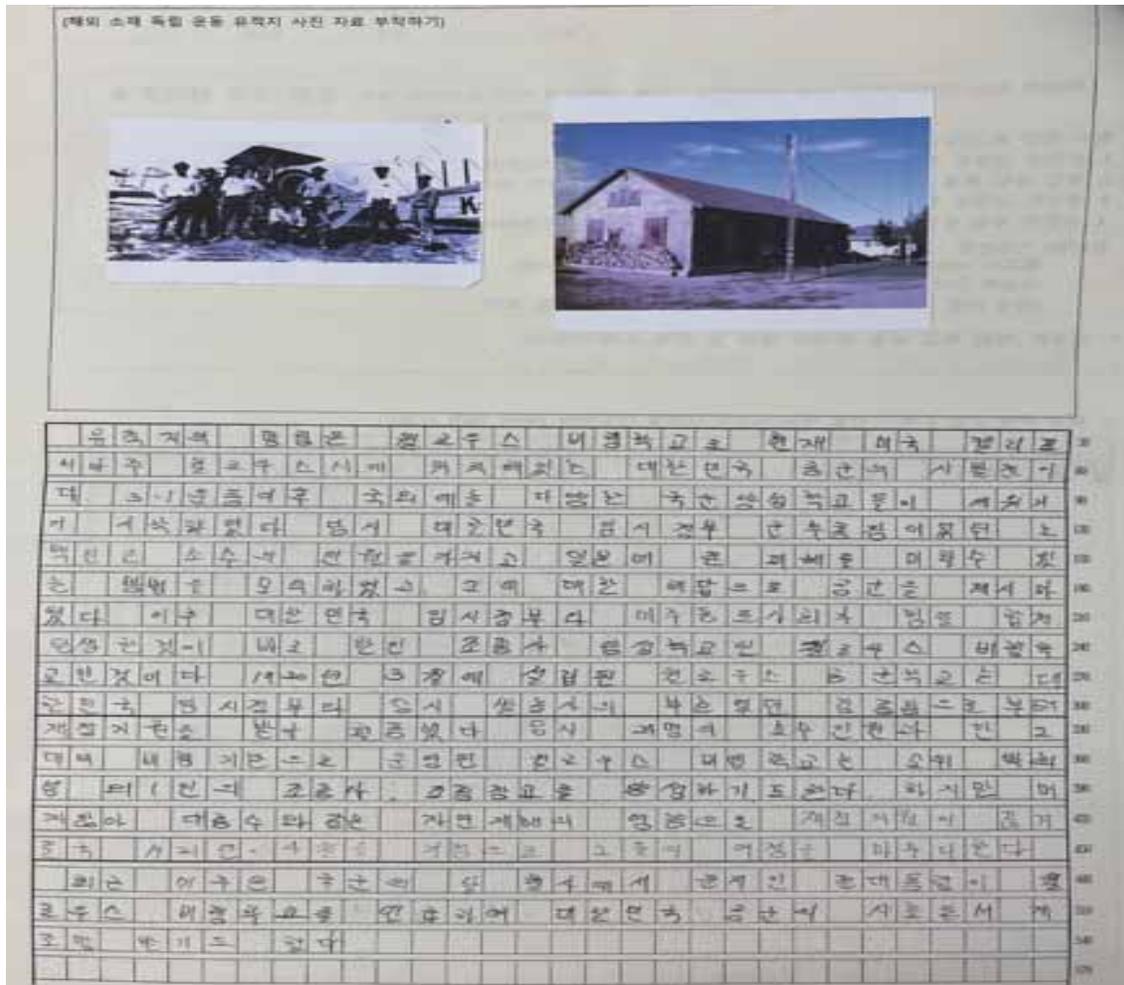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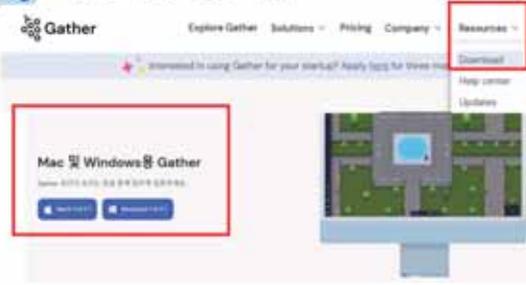
---

자료 7-2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문 작성 및 발표 사례



자료 8 메타버스(게더타운) 안내 및 제작 기초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게더타운 도움말(<https://support.gather.town/help>)

<h3>가상의 모임 공간</h3> <p>RPG GAME + video voice c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회의</li> <li>2. 가상 오�피스 비대면 플랫폼</li> <li>3. 2D 공간과 아바타 캐릭터 사용</li> <li>4. 인터랙티브 매커니즘</li> <li>5. 한 공간 각각 다른 공간 분리</li> <li>6. 시간 무제한 무료 25명</li> </ol> <p>RPG : Role Playing Game</p>	<h3>국내 메타버스</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재메토</p>  <p>게더타운 유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프랜드</p>  <p>모임주제에 따른 실감나는 공간 구성</p> </div> </div> <p>전 세계 가입자 3억 명 해외 유저 비중 70% 이상의 글로벌 1등 3D 아바타 서비스</p>
<h3>게더타운 장점</h3>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3, 1fr); ga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인/그룹)화상 회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프레젠테이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상호작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규모 웹미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간 커스터마이징</p> </div> </div>	<h3>메타버스 활용</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VR 증강현실(산업)</p>  <p>클라우드 워킹(Cloud Working, 원격근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라이프 로깅(Lifelogging)</p>  <p>회의/교육/미팅</p> </div> </div>
<h3>게더타운 활용</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시립대학교</p> <p>자료 : 서울시 홍보가사 <a href="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196">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196</a></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유네스코 파리본부 특강이 생긴 게더타운 <a href="https://youtu.be/7uJMKH2uo">https://youtu.be/7uJMKH2uo</a></p> </div> </div>	<h3>게더타운 온라인 접속 브라우저</h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사용가능한 브라우저</p>
<h3>게더타운 로그인</h3> 	<h3>게더타운 PC 버전</h3> 

### 게더타운 메뉴



### 게더타운 새로운 공간 만들기



### 게더타운 템플릿 선택



### 게더타운 템플릿 선택



### 게더타운 공간설정하기



### 나만의 아바타 만들고 접속하기



### 조작키



### 조작키

- 키보드 방향키(WASD 키) : 아바타 움직임 제어
- g : ghost 투명모드로 이동
- z : 아바타 댄스 모드
- x : 오브젝트 상호작용
- f : 공중에 색종이 뿌리기
- 숫자 키 1~6번 : 아바타의 감정 이모티콘 표현
- 숫자 키 0 : 이모티콘 지우기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시작  
Newly: 2시간 전 (2023-09-07) 10:00:00  
Everyone: 2시간 전 (2023-09-07) 10:00:00  
상위권 사용자: 2시간 전 (2023-09-07) 10:00:00

설정, 화면공유, 피니 시도, 동적메시판, 채팅, 공간 꾸미기 수정, 탐색자, 채팅 및 이를 수정, 공간 회전, 이동, 원자로, 채팅

### 기본 템플릿 오브젝트 설치하기

기본 템플릿 오브젝트 설치하기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 선택

### MapMaker 사용 - 맵 만들기

### MapMaker 모드

MapMaker 모드

MapMaker 모드

MapMaker 모드

### 새로운 방 추가하기

새로운 방 추가하기

새로운 방 이름 넣고 Enter가 입력, Create a New Room, Update background

### 방 공간 이동 Portal 타일 지정하기

### 게더타운 맵 만드는 순서

1단계	Floors	바닥 직접 디자인하기
2단계	Walls	벽 직접 디자인하기
3단계	Objects	가구, 꾸미기 물건 설치
4단계	Tile Effects	그룹별 영역 지정

후제별 템플릿을 사용하면 오브젝트와 다일효과만 설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간 생성가능

### Open Mapmaker - Objects

Open Mapmaker - Objects

Open Mapmaker -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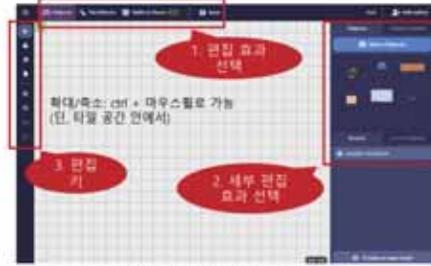
Open Mapmaker - Objects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Mapmaker - Tile Effects(바닥타일)



### 맵메이커 화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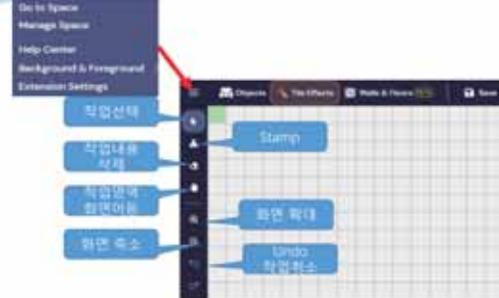


Tip! 1, 2, 3 순서로 선택 후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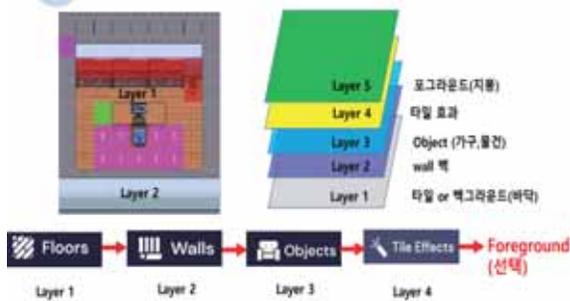
### 편집 키



### 맵 수정 - Mapmaker 메뉴



### 게더타운 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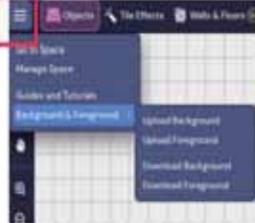


### Mapmaker -벽, 바닥



### Mapmaker 메뉴

1.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기
2. 공간 관리하기
3. 가이드와 튜토리얼
4. 가상공간 배경/전경 이미지



### 오브젝트 선택

1. 오브젝트: 열 위에 놓는 객체 물건
2. 모든 오브젝트는 아바타와 상호작용 가능
3. 웹사이트 링크, 이미지, 문서, 비디오
4. 텍스트 표시가능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비디오 채널 연결하기

### Object Interactions – 고급 기능 (Advanced options)

- 다가가면 보이는 문구
- 별도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 보이는 이미지
- 별도의 이미지를 넣을 경우 다가가면 보이는 이미지
- 나타나는 시간
- 사라지는 시간

### 구글 문서 연결하기

1.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 넣기
2. PDF 파일 링크 생성하기
3. 복사된 링크경로에서 view 대신 preview로 바꾸기

### 소리 오브젝트

공간별 크기 선택 (Large/Small)

Objects -> Sound

### 게더타운 구글 번역 한글 번역

### 게더타운 외부 학습 자료 연동

구글 문서 - PPT, WORD, EXCEL      MIRO - 하이트보드

### 스페이스 만들기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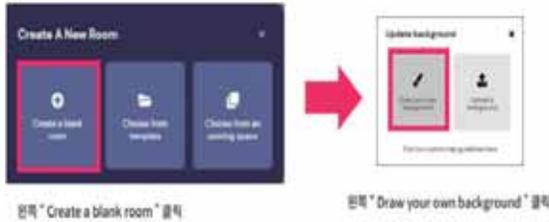
1. 어떤 공간으로 채울지 고민한다. => 포스트잇 활용  
[Ex. 사무실, 강의실, 피팅룸, 휴게실, 영상 컨퍼런스룸, 루프탑, 바다, 방탈출 등]
2. 다양한 템플릿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커스터마이징한다.  
[참고사항: 규격과 배치구도(공간감) / 타일, 벽, 오브젝트 조화(디자인감)]
3. 뼈대 만들기  
[참고한 규격을 통해 타일, 벽 지정]
4. 오브젝트 만들기  
[장식용/상호작용 오브젝트, 스펀, 포털, 프라이빗 스페이스, 스포트라이트, 입체서랍 등]
5. 입장 위치와 게더타운 사용법 배치  
[이동 방법, 상호작용 방법, 공간 이용 팁 등]

### Portal 공간 이동(새로운 방안들기)

오른쪽 처단의 "Create a new room" 클릭      ROOM 이름 설정 후 엔터!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Portal 공간 이동(배경 만들기)



### Portal 공간 이동(공간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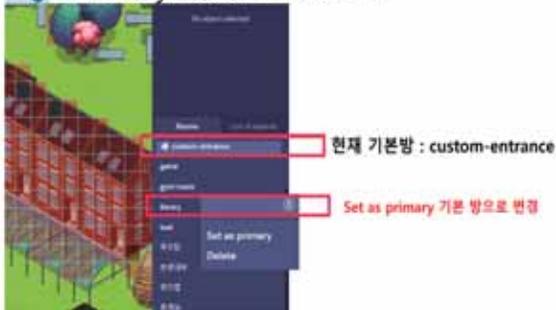
### 가상공간 (배경 PNG 추가)



### 포탈 이동 위치 지정하기



### Primary Room 지정하기



### Beta 기능 활성화 하기



### Beta 기능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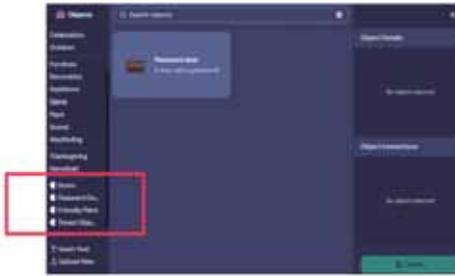


### 베타기능 사용하기 비밀번호 Door, 식물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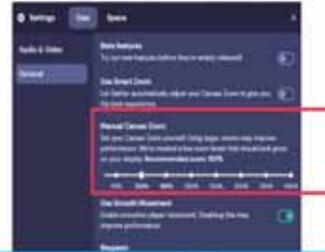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비밀번호 도어 오브젝트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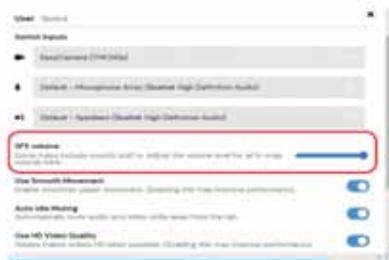


### 화면 사이즈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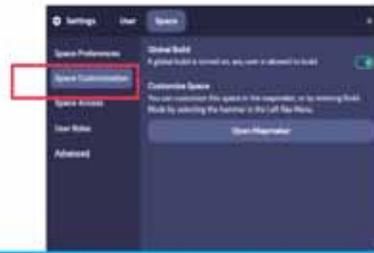
Settings -> User -> General -> Use Smart Zoom(비활성화) -> Manual Canvas Zoom

### 볼륨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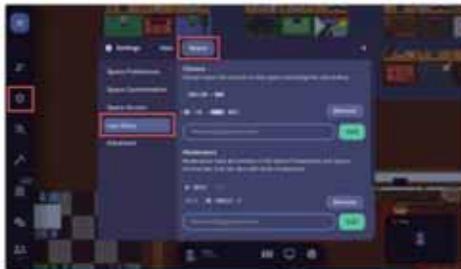
Settings -> User -> SFX volume

### Global Build (참가자 모두 맵 수정)



Settings -> Space -> Space Customization -> Global Build On/Off

### 맵 소유자 등록



Settings -> Space -> User Roles -> Owners

출처: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사 연수(제○○ 강사) 강의 자료



## 바. 참고 자료

### 1 문헌

- 김동우, 『몽우리돌의 바다』, 수오서재(2021)
- 김동우, 『몽우리돌을 찾아서』, 아카이브 류가현(2019)
- 전후석, 『당신의 수식어』, 창비교육(2021)
- 강건영, 『하와이, 멕시코, 남미로의 한인 이민』, 선인(2017)
- 강건영, 『중국, 중앙아시아, 극동러시아 기행』, 선인(2015)
- 박환,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다』, 선인(2019)
- 이흥섭,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 논형(2018)
- 최양현, 최영우, 『1923년생 조선인 최영우』, 효형출판(2022)
- 이연경 외, 『인천, 백년의 시간을 걷다』, 북멘토(2019)
- 김상균, 『메타버스』, 플랜비디자인(2020)
- 변문경 외,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다빈치books(2021)
-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 정근식(2004),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두 개의 진전
- 조일동(2018),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 강원, 김현국(2008), 다문화시대 문화 중계자로서 디아스포라의 가능성 연구
- 최금좌(2022), 쿠바 한인 후손들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 이민 100주년 기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 2 인터넷 자료

- 재외 한인의 역사(<https://theme.archives.go.kr>)
-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http://historyofkorea.co.kr/renew/sub01.php>)
-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기억해주세요!(<https://www.youtube.com/watch?v=Lcw3v-iWns0>)
- 역사로 떠나는 여행...한국 이민사 박물관(<https://www.youtube.com/watch?v=aXncqNCY2ms>)
- 한국 이민사 박물관([https://www.youtube.com/watch?v=GaX-oITLD\\_8](https://www.youtube.com/watch?v=GaX-oITLD_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민(移民)부분 발췌(<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4308>))
- 외교부 보도자료, 2021.12.24.(금)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0))
- google 검색 - 검색어 Jewish museum location

### 3 기사 자료

- 전준호, 「임청각 복원 시점은 '일제의 철도개설 이전'으로」, 한국일보, 2017.11.06.
- 강성철, 「한국 이민사박물관, 이민 120년사 조영 '그날의 물결' 특별전」, 연합뉴스, 2022.10.04.

### 4 기타 자료

- 메타버스(게더타운) 연수 자료(잼솜메이커 제○○ 제작)
- 이태준 공원&기념관 이미지 사진((사) 대암 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
-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이미지 사진(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 문화유산채널(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산, 봉화 청량산 영상 캡처)
- 문화재청 누리집(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
- 전후석(2019), 다큐멘터리 헤로니모

